

## 權相一과 근기남인계 학인의 지식문화적 교유 : 18세기 상주권 강안학의 수용성과 확장성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권상일의 근기권 교유네트워크
  - III. 지식문화인프라의 작동 양상 : 근기권 星湖學人과의 교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8세기 상주권 江岸學의 지식문화적 수용 및 확장성을 權相一(1679-1759)의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권상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8세기 영남학파에서 지나는 그의 학자·관료적 위상에 근거하고, 특히 근기남인계 학인들과의 활발했던 교유관계는 영남학의 수용성 및 확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의 하나인 수용성은 근기남인계 학인의 지적 욕구의 흡입, 또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 / ksoya@aks.ac.kr

그들이 은축한 지적 자산에 대한 관심과 ‘받아들임’의 양상으로 풀이할 수 있고, 확장성은 권상일의 학자적 역할이 근기남인계 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鄭蘊-李元翼’, ‘河弘度-許穆’, ‘裴尙瑜-柳馨遠’, ‘李玄逸-丁時翰’으로 이어지는 영남과 근기의 정치·학문적 제후와 소통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보다 선명하게 포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江岸學, 상주권, 權相一, 李漢, 근기남인, 성호학인

## I. 머리말

이 글은 江岸學의 지식문화적 수용성을 16~18세기라는 시간, 상주권이라는 공간을 통해 진단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공간적 배경인 ‘상주권’은 상주를 비롯하여 함창·예천·의성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적 개념이며, 수용성은 외부와의 교섭 및 대응의 태도를 포함하여 그 ‘받아들임’의 용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權相一은 숙종~영조조 퇴계학파를 대표했던 학자·관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퇴계학의 부심지인 상주 출신이었지만 자기 시대의 예안·안동권 학인들을 압도하는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기미에 밝았던 온건한 처신은 영조의 친애는 물론 노론들로부터도 크게 배척되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학자적 권위와 관료적 현달은 교유의 스펙트럼이 광폭화 되는 바탕이 되어 다양한 지역과 성향의 학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근기권 남인계 학인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李瀾의 학문적 영향권 속에 있었거나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星湖學人으로 통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 글은 크게 두 개의 논점으로 짜여져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근기권 교유네트워크를 가문 및 개인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형질(形質)을 진단하는 효율적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I장에서는 교유의 대상을 6개로 구분하여 대 근기권 교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갖는 지식문화사적 의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 權相一의 근기권 교유네트워크

### 1. 가문별 분포

동서분당 당시 동인의 양대 기반을 이룬 것은 이황의 退溪學派와 조식의 南冥學派였다. 선조 후반 동인이 다시 남북으로 갈라질 때 柳成龍 등 남인의 중추를 이룬 것은 전자였고, 鄭仁弘 등 북인의 토대를 이룬 것은 후자였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정권이 패망하면서 정치·학문적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남인 퇴계학과였고, 남명학파의 일부도 정구·장현광을 매개로 연원 전향을 시도함으로써 퇴계학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적 판도는 남인과 서인의 대립구도로 전개되었다. 특히, ‘牛栗陸廡贊反論’, ‘禮訟’ 등은 정치적 다툼이 학문적 정통성 논쟁과도 결부되어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sup>1)</sup>

그러나 남인이라고 해서 정치·학문적 성향에 있어 완벽한 동일체는 아니었다. 우선 남인은 ‘서울남인[近畿南人; 京南]’과 ‘영남남인’으로 양분되는 데, 전자의 주류가 서울 및 근기지역에 기반을 둔 花潭淵源의 소북계통이었다면<sup>2)</sup> 후자의 본체는 영남에 세거한 退溪學統으로서 남론을 세수했던 계열이었다.<sup>3)</sup>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남인이라는 틀 속에서 정치적 결합을 이루며 대서인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우울승 무찬반론’과 ‘예송’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정치적 제휴는 학술문화적 영역으로의 교유를 촉진하는 동인이 되어 17세기 중반 이후 양자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를 인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서 나타나듯 양측의 학술문화적 교유와 정치적 제휴의 기점은 17세기 초반 鄭蘊과 李元翼의 관계로 상정할 수 있고,<sup>4)</sup> 이런 경향은

1) 허권수, 『남인과 서인의 학문적 대립』, 법인문화사, 1993, 83-178쪽.

2) 許穆·尹鑄·丁時翰·李觀微·李沃·李夏鎭·李袞·鄭重微 등 숙종조 남인정권에서 당로자 역할을 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소북계 남인으로 파악된다.

3)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집권한 1675년 남인들이 당면했던 ‘열가지 난제[南人十難]’ 가운데 하나가 ‘小北難合[소북과는 단합하기 어렵다]’이었다는 점에서도 이질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4) 정온과 이원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학수, 「이원익(李元翼)의 학자·관료적 삶과 조선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익과 권상일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명되었지만 본고에서는 권상일의 근기 교유망을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근기권의 諸 학인 및 관료들에게까지 확장하여 관계의 범주와 내용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근기·영남남인 교유의 역사적 맥락 : 17~19세기

- 李元翼과 鄭蘊(安義) : 17세기 초반
- 許穆과 河弘度(晉州) : 17세기 중반
- 柳馨遠과 裴尙瑜(金山) : 17세기 중반
- 丁時翰과 李玄逸(寧海/安東) : 17세기 후반
- 李瀾과 權相一(尙州) : 18세기 초중반
- 蔡濟恭과 嶺南學人 : 18세기 중후반
- 安鼎福과 鄭宗魯(尙州) : 19세기 초반
- 許傳과 嶺南學人 : 19세기 중반

권상일의 학자 및 관료로서의 삶의 기록인 『淸臺集』과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근기남인과의 인적교유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家로 구분하면 약 40개 집안으로 집계되는데, 결코 작은 범주라 할 수 없다.

---

후기 남인학통(南人學統)에서의 위상, 『퇴계학보』 133, 퇴계학연구원, 2013, 96-100쪽. ; 김학수, 「桐溪 鄭蘊의 학맥」, 『남명학보』 4, 남명학회, 2005, 144-152쪽.

권상일의 근기남인계 학인과의 교유망 : 가문(1)

- 양천허씨 許積家 : 許銳
- 우계이씨 李瑞雨家 : 李瑞雨
- 연안이씨 李昌庭家 : 李浹/李萬敷/李之幹/李之栢/李萬維/李之昉
- 청주한씨 韓浚謙家 : 韓德師/韓德良/韓德采/韓光道
- 청주한씨 韓百謙家 : 韓世維
- 진양강씨 姜紳家 : 姜樸/姜必岳
- 진양강씨 姜綱家 : 姜碩賓/姜櫟/姜樛/姜必得/姜必應/姜世東
- 진양강씨 姜縉家 : 姜楷/姜必愼
- 여주이씨 李尙穀家 : 李澈/李渾/李重煥/李用休/李國休/李孟休
- 진주유씨 柳命天家 : 柳徠
- 안동권씨 權階家 : 權階
- 동복오씨 吳端家 : 吳尙遠/吳德運/吳錫年/吳大益
- 평강채씨 蔡彭胤家 : 蔡彭胤
- 원주김씨 金斗南家 : 金廷潤/金朝潤
- 여흥민씨 閔應協家 : 閔昌道
- 사천목씨 睦時敬家 : 睦時敬
- 전주이씨 李誠中家 : 李興慶
- 전주이씨 海原君家 : 李益熙
- 전주이씨 李晬光家 : 李玄錫/李漢訥
- 전주이씨 李德馨家 : 李光國
- 과평윤씨 尹國馨家 : 尹基慶
- 나주정씨 丁應斗家 : 丁喜愼/丁錫天
- 안동권씨 權近家 : 權極
- 해주정씨 鄭重徽家 : 鄭運熙
- 풍산홍씨 洪履祥家 : 洪重徵/洪重寅/洪儒漢

권상일의 근기남인계 학인과의 교류망 : 가문(2)

- 하동정씨 鄭尙驥家 : 鄭恒齡
- 의령남씨 南彦縝家 : 南鶴宗
- 의령남씨 南斗望家 : 南顯老
- 광주이씨 李延慶家 : 李賢汲
- 동래정씨 鄭麟壽家 : 鄭彦弼/鄭彦忠
- 사천목씨 睦來善家 : 睦宗夏
- 문화유씨 柳馨遠家 : 柳發
- 안동권씨 權大任家 : 權紀彦
- 한양조씨 趙綱家 : 趙窓/조숙
- 양천허씨 許厚家 : 許樛
- 청송심씨 沈檀家 : 沈檀
- 전주이씨 李準家 : 李儼

## 2. 개인별 현황

권상일이 교유했던 근기남인은 100명(37家)을 상회하지만 교유의 빈도와 내용은 사뭇 달랐다. 단회적 방문 또는 대담에 그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신 왕래 및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대상도 있었다. 서신을 매개로 교계를 지속했던 대표적 인물이 이익이었다. 지속적 관계를 유지했던 대상 중에도 지식정보의 교환 및 전달, 비문 등 문자 교류, 학문 토론 등 지식문화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 인물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아래 표에 제시된 인사들은 권상일의 대 근기남인 교유의 형질을 포착, 분석할 대상으로서 손색이 없다.

주요 교유인 : 근기남인계

- 李萬敷/李衡祥/李灝<sup>5)</sup>
- 吳尙遠 : 동복오씨(吳端家)
- 李澈/李重煥/李用休/李孟休 : 여주이씨(李尙毅家)
- 韓德師/韓德良/韓德采/韓光道 : 청주한씨(韓浚謙家)
- 韓世裕 : 청주한씨(韓百謙家)
- 李興慶 : 전주이씨(李誠中家)
- 李益熙 : 전주이씨(海原君家)
- 洪重寅/洪儒漢 : 풍산홍씨(洪履祥家)
- 南顯老 : 의령남씨(南翽家)
- 柳發 : 문화유씨(柳馨遠家)
- 姜楷/剛薄/姜必愼/姜必應/姜必得/姜世東 : 진주강씨(姜紳/姜綢/姜紉家)
- 柳休 : 진주유씨(柳命天家)
- 李漢訥 : 전주이씨(李晬光家)
- 鄭恒齡 : 하동정씨(鄭尙驥家)
- 李光國 : 광주이씨(李德馨家)
- 趙窓/조숙 : 한양조씨(趙綱家)
- 許樛 : 양천허씨(許厚家)

교유 형태

- 서신 왕래 : 안신/시사 및 학문 토론
- 방문 및 대담 : 시사/학문
- 지식정보의 전달 및 제공 : 서책 및 서신의 전달
- 글씨 수증 : 서원 및 서당 제 堂室의 額書

5) 李萬敷, 李衡祥은 권상일의 주요 활동기에 각기 상주와 영천에 정착했고, 이익과의 관계는 여러 논고를 통해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기로 한다.



주요 교유인의 대부분은 조선후기 근기남인 명가들의 자제들이며, 또 이들의 상당수는 이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예컨대, 黃運大·禹徵泰·趙重普·柳徠·韓光道 등은 이익 문인[星湖門人], 이익희는 이서의 문인[玉洞門人]이었다. 이 외에도 문집·유고의 序跋, 行狀·碑誌類 등 문자 찬술 및 교유 과정에서 이익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한 집안 또는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권상일의 대 근기 인적네트워크는 성호학적 범주와의 등치가 가능하다.

### Ⅲ. 지식문화인프라 작동 양상 : 근기권 星湖學人과의 교류

#### 1. 李滉·李孟休 : 李瀾에서 星湖一門으로의 관계의 확장

권상일의 교유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이익의 3형 이서이다. 이서는 한국서예사에서 우뚝한 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학인이었다. 특히 그는 중형인 이잠을 비롯하여 李萬敷·曹夏疇 등과 교유하며 18세기 초반 근기남인학풍을 주도함으로써<sup>6)</sup> 사후에는 이만부 등에 의해 ‘弘道’라는 私諡가 주어지기도 했다.<sup>7)</sup> 허전은 그의 행장을 지으면서 ‘樞衣’ 또는 ‘請益’한 이가 천 명에 이르고, 수업한 이가 수 백명에 달한다고 했을만큼 후진양성에도 기여한 바가 컸는데,<sup>8)</sup> 후술할 이익희가 玉洞門下의 선진에 해당하는 문인이었다.<sup>9)</sup>

6) 李萬敷, 『息山集』 卷12, <中原講義>.

7) 許傳, 『性齋集』 卷29, <弘道先生玉洞李公行狀> “李息 山萬敷曰先生學問道德 弘大斯道 可以弘道爲諡 衆皆從之 及葬題其誌曰徵士弘道先生之墓”

8) 許傳, 『性齋集』 卷29, <弘道先生玉洞李公行狀> “先生之門 樞衣請益者以千數 而終始受業者數百人 及先生易簀 皆服師服 心喪三年”

9) 許傳, 『性齋集』 卷29, <弘道先生玉洞李公行狀> “先生雖晦跡山林 聲聞日播 當世之鴻儒巨匠 自遠來集 一見德容之純粹 議論之宏博 莫不斂容欽服 退而相謂曰今日始見眞儒 誠吾輩之師表也 李處士益熙曰侍坐於吾先生 退而出門 道遇軒輶 未嘗不如草芥也 由是

권상일과 이서와의 상견이 이루어진 것은 1719년 6월 30일이었다. 당시 권상일은 성균관 직장에 임명되어 사환에 분주하던 시기였다. 이서가 사돈 姜善君 姜碩賓의 우거를 방문하자 권상일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권상일은 강석빈과 그 아들 姜樛[李澈의 사위]과 교분이 있었고, 이서를 만나기 이레 전인 6월 23일 이들 부자와 환담을 나눈 바 있다.<sup>10)</sup> 초면인데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 못했음에도 이서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던 것 같다.

1719년 6월 30일. 이찰방(李澈) 어른은 참의 李夏鎭의 아들이다. 通儒라 할만하고 글씨 또한 잘 썼다. 요사이 포천 시골집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어제 서울에 들어왔다. 강씨어른(姜碩賓)은 그의 사돈이다.<sup>11)</sup>

‘通儒’라는 표현에서 이서의 학자적 역량에 대한 강한 신뢰가 드러나고 있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짧은 만남이었지만 주고받은 대화의 면면은 긴요하고 절실했다. 자세한 논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권상일은 대담 과정에서 이서의 理氣說이 자신의 주장, 즉 퇴계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설에 있어 이익과의 견해 차이를 고려할 때, 이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권상일에게는 큰 소득으로 자각될 수 있었다.

弟子益進”. 물론 근기남인 내부에서도 이서와 옥동문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이만부의 경우 이서에 대해서는 ‘학문이 정치하지 못하다’고 평한 바 있고, 옥동문인에 대해서는 ‘收斂의 자세가 부족하고, 浮浪한 기풍’이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李萬敷, 『息山集』 卷12, <華陰日錄抄> “余久未戾洛 阻關已積歲 澄叔不無博而不精之病 然要爲好人也 但其門人無敦厚收斂之意 多曠蕩浮浪之氣 是可歎也”).

10) 이런 맥락에서 권상일은 姜樛의 아들이자 李澈의 외손자인 姜必應·必得 형제와의 교유도 돈독했다. 본디 강석빈 일가는 경화 사족이었으나 충청도 舒川에도 상당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 형제가 서천에서 수십년 동안 우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權相一, 『淸臺集』 卷3, <姜友兄弟 必應必得 寓居舒川鄉庄 已經數十年 新結小軒 爲朝暮湛樂之所 昨冬寄書來 請題咏 略以絕句三疊 塞求>).

11) 權相一, 『淸臺日記』, <1719년 6월 30일>.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淸臺日記』는 2015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간한 『청대일기』(신상목역, 일기국역총서14)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두 사람은 時論에 있어서도 의견이 합치했고, 이에 권상일은 강한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남인계에서는 이이의 문묘 출향을 주장하는 상소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이·성혼의 문묘종사는 1682년에 이루어졌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출향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자 復享된 바 있다. 1694년에는 이들의 복향뿐만 아니라 보사공신이 復勳되고, 인현왕후가 復妃 됨으로써 이른바 ‘三復’으로 일컬어졌다.

세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이서는 출향을 주장하는 상소에서 자잘한 허물은 거론하지 말고 ‘이이의 학문은 禪에 가깝다’는 학문적 이단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권상일 또한 이 입장에 적극 찬동했던 것이다.

1719년 6월 30일. 그의 理氣說은 나의 의견과 다름이 없었다. ‘우리들이 栗谷(李珣)의 문묘종사를 배척함에 있어 사소한 행적은 놓아두고, 그의 학문이 禪에 가깝다는 것을 거론하여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저쪽[노론]으로 하여금 굴복하여 변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의 견해와 매우 같아서 기뻐했다.<sup>12)</sup>

한편 권상일은 대화의 과정에서 이서로부터 ‘퇴계를 조선 문장의 으뜸’으로 쳤던 李瑞雨의 평론과, 신학설을 주장했던 소북계 근기남인 李栻의 학문적 乖隔性을 들을 수 있었다.

1719년 6월 30일. ‘도사 李栻이 근래 腎學說을 주장하였는데, 일찍이 그가 주장한 책자를 보니 하나같이 고금의 성현이 언급 또는 들려주지 않은 말이었다. 이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으로 자처하지만 이처럼 괴이하고 비뚤어졌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sup>13)</sup>

이식은 이서·이익과 척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여주이씨 일문의 학자적 모범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2) 權相一, 『淸臺日記』, <1719年 6月 30日>.

13) 權相一, 『淸臺日記』, <1719年 6月 30日>.

先子[李沈]께서 보시고는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李松禾(李弼)처럼 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송화는 곧 나의 외할머니의 아우로서 篤行으로 이름이 있으며 畏菴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다.<sup>14)</sup>

하지만 이식의 저술 ‘堂室銘’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의 학문적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식 또한 1718년 경 ‘당실명’에 의문을 표하며 서간을 통해 논란을 펼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식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식은 그를 두고 ‘남을 이기는 데 힘쓰고, 義理의 소재를 구명하지 않는 인물’로 혹평하기까지 했던 것이다.<sup>15)</sup> 이서의 ‘신학설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양인의 관계는 우연에 따른 단회적 만남에 지나지 않았지만 권상일은 이서를 통해 근기남인의 퇴계학에 대한 입장, ‘栗谷黜亭論’의 추진 과정, 이식과 같은 새로운 부류의 학설을 주장하는 학인의 동정 등을 채득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학자 그리고 관료로서의 처신에 매우 유익한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서와의 교유는 점차 李重煥(1690-1756)·李用休(1708-1782)·李孟休(1713-1751) 등 여주이씨 일문과의 관계로 확장되었다.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교유한 것은 향렬에 비해 나이가 많았던 이중환이었다. 비록 이중환은 1720년 4월 23일 주서 재임시에 安信을 보냈고, 나흘 뒤인 27일에는 병환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은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서와 이식 형제에 이은 교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했다.

1720년 4월 27일. 주서 李重煥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병이 심해 며칠 전 직무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sup>16)</sup>

14) 李秉休, 『貞山雜著』, <貞山自序> “先子 見之喜曰 他日能如李松禾 則幸矣 李松禾即余外王母之弟 而篤行著名 號畏庵先生者也.”

15) 김학수, 「星湖 李瀾의 학문 연원」, 『성호학보』1, 성호학회, 2005, 23-27쪽.

16) 權相一, 『淸臺日記』, <1720年 4月 27日>.

이용휴와의 교류 또한 주로 서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익의 동정 및 병후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시 이용휴가 지근한 거리에서 이익을 侍學했음을 뜻했다.

① 1745년 4월 22일. 상사 李用休에게 편지를 보내 원주에 있는 성호의 병환을 물었다.<sup>17)</sup>

② 1745년 5월 2일. 우상사 이용휴가 사람을 보내 전하는 말을 들어 보니, 보냈던 종이 막 원주에서 돌아왔는데, 계부[星湖]의 병환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낮빛이 바뀌었다.<sup>18)</sup>

여주이씨 가계도 : 李漢 일가

李尙毅	⇨志定	⇨嵩鎭	⇨泳	⇨震休	⇨重煥
	⇨志安	⇨夏鎭	⇨濯		
			⇨潛		
			⇨澈[出]		
			⇨沈[出]		
			⇨漢	⇨孟休	⇨九煥
		⇨殷鎭	⇨澈		
		⇨周鎭			
		⇨國鎭			
		⇨明鎭	⇨沈	⇨用休	⇨家煥

이익의 제 子姪 가운데 권상일이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이맹휴였다. 이익의 아들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그가 지녔던 특출한 자질과 역량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 관심은 일방적 推獎이 아닌 육중한 勸戒를 함축하고 있었다.

이맹휴는 1742년 9월에 치러진 정시 문과에서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장원을 차지했다. 命官은 宋寅明이었고, 策題는 ‘時弊五條’였다. 당시 그

17) 權相一, 『淸臺日記』, <1745년 4월 22日>.

18) 權相一, 『淸臺日記』, <1745년 5월 2日>.

의 장원을 두고 元景夏 등이 숙종에게 득죄한 이잠의 조카라는 이유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sup>19)</sup> 등 노론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인재라면 등용하라’는 영조의 판단에 따라 장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숙종조 남인정국에서의 이하진의 역할, ‘세자[景宗] 보호론’을 주창하다 죽임을 당한 이잠의 역정을 고려할 때, 여주이씨 일문을 향한 노론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이맹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었다.

장원 합격 직후 권상일은 이맹휴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식은 축하였지만 내용은 권계였다. 먼저 그는 장원 합격 소식에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성상께서 친히 시험을 보신 날에 天人の 설[時弊五條]을 올려 과연 장원을 차지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후로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sup>20)</sup>

권상일의 우려는 장원 즉, 엘리트 문신으로의 도약이 갖는 함정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맹휴는 자질이 英發하고 30세라는 나이에 비해 학식이 博洽했다. 이제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림과 삼감의 미덕’이었다.

그대는 자질이 英發하고 학식이 博洽하므로 더 이상의 加工은 필요치 않고, 오히려 斂束과 謹密함에 유념하여 힘을 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21)</sup>

이처럼 그는 이맹휴에게 ‘斂束과 謹密의 처세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 일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세한 진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 『英祖實錄』, <英祖 18年 9月 18日(甲戌)>.

20) 權相一, 『淸臺集』卷9, <與李醇叟孟休(壬戌)>(1742) “聖上親策之日 得獻天人之說 果蒙魁擢 自聞此報 夜有不寐之喜也”

21) 權相一, 『淸臺集』卷9, <與李醇叟孟休(壬戌)>(1742) “英發博洽 不必加工 須於斂束 謹密處 留念着力 如何”

이맹휴는 영남과 근기의 문화교유에도 일정하게 기여하게 된다. 권상일은 윤덕희의 글씨에 문화적 호감도가 높았던 것 같고, 도남서원과 반계서당 등 상주사림의 교육문화인프라는 자신의 서재에까지도 그의 글씨를 계관하려는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기호를 향유함에 있어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 것이 이맹휴였다.

1745년 4월 17일. 편액을 쓸 종이 19장을 醇叟[李孟休]에게 보내면서 尹德熙에게 글씨를 청하라고 했다. 윤공은 孤山[尹善道]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 尹斗緒는 재주와 행실이 있었으며, 호는 恭齋이다.<sup>22)</sup>

이로부터 엿새 뒤인 4월 23일 권상일은 요청한 글씨를 받고는 무척 흡족해했는데, 필법의 뛰어남에다 필세의 강건함이 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남서원, 반계서당, 淸臺 新居 등에 계관할 총 10개 액서의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尹德熙로부터 受贈한 글씨[額書 10종]<sup>23)</sup>

- 道南書院 : ‘遜學齋’ / ‘觀遊軒’ / ‘敏求齋’ / ‘瞻猗軒’ \_4額
- 礪溪書堂 : ‘敬勝齋’ / ‘義安齋’ / ‘由正門’ \_3額
- 淸臺新居 : ‘靜習齋’ / ‘敬存齋’ / ‘川上軒’ \_3額

한편 권상일은 1745년 8월 이맹휴가 만경현령에 임명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그 소식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1745년 8월 26일. 李醇叟[李孟休]가 萬頃縣令에 제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고을은 생선과 게[蟹]가 나는 곳이라 아버이를 봉양하기에 넉넉할 것이다.<sup>24)</sup>

22)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4月 17日>.

23)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4月 23日>.

24)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8月 26日>.

이 말은 의례적 인사 치례가 아니라 빈한했던 이익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간파한 데에서 나오는 일종의 안도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맹휴는 1748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4년을 병고에 시달리다 1751년 5월에 39세로 사망하게 되는데,<sup>25)</sup>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익이 안정복에 보낸 편지에는 절망감이 가득하다.

자식의 병이 골수에 깊이 박혀 만 2년이 넘도록 심각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복부는 굵고 짓물러서 환부가 왼쪽으로 퍼져 가고 있으며, 볼기와 척추 사이에는 두 군데에 걸쳐 종기 구멍이 터졌으니, 그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늙은 내가 밤낮으로 직접 간호하다 보니, 근력이 소진되었고 가산도 따라서 탕진 되어 약과 음식을 대는 일도 거의 모두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sup>26)</sup>

이 무렵 권상일 또한 이맹휴에게 治心을 통한 회복을 기원하는 격려의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교유 장면이다.

병석에 오래 있다 보면 쉽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법이니, 바라건대 마음을 한가하고 편안한 데 두고 때로 책을 보고, 때로 담론을 하면서 病處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릇 병은 몸의 기운이 平利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治心이 곧 치병의 근본이 되며, 심기가 안정되면 작고 하찮은 질병 따위야 어찌 차츰 나아져 회복되지 않겠습니까<sup>27)</sup>

이맹휴가 사망한 뒤 권상일은 망인의 ‘遺疏草稿’를 입수하는데 부심했고, 1754년 4월 27일 비로소 수령하게 된다.<sup>28)</sup> 1753년 이익이 鄭顯老에 보낸 서간에 따르면, 이 유소는 이맹휴의 경세관이 집약된 시무소로

25) 安鼎福, 『順菴集』 卷27, <李萬頃醇叟遺事(壬申)>(1752) “戊辰 得奇疾 彌留四載 辛未五月七日卒 年三十九”

26) 李瀾, 『星湖全集』 卷24, <答安百順(辛未)>(1751).

27) 權相一, 『淸臺集』 卷9, <與李醇叟>.

28) 이맹휴의 저술로는 『蒼臺源流』(1卷), 『春官志』, 『接倭歷年攷』, 『居官錄』, 『居縣錄』, 『經說』, 『禮說』(1卷), 『禮記說』(1卷), 『心遠編』, 『蛾述錄』, 『家傳』, 『礪臼餘錄』 등이 있다(李瀾, 『星湖全集』 卷67, <亡子正郎行錄>; 李瀾, 『星湖全集』 卷29, <答鄭玄老(甲戌)>(1754)).



서 영조에게 상달되지는 못한 것이었다.<sup>29)</sup>

죽은 아들의 草稿[遺疏草稿]는 본래 임금에게 주달하여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으나 결국 올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기에 집에 보관해 두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대,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든 생존해 있던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혹시라도 뜻 있는 사람이 그의 견해를 받아들여 시행해 본다면 내가 본래 뜻한 바를 이룬 것이 될 것입니다.<sup>30)</sup>

이익의 표현대로 이 유소는 내용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차람 요청이 쇠도했던 것 같은데, 권상일 직전에 이를 빌려본 이는 판서 洪重徵이었다.

죽은 아들의 유소 초고와 『居官錄』은 지금 洪尙書[洪重徵]가 빌려 갔습니다.<sup>31)</sup>

권상일은 이 유소를 1754년 4월부터 1757년 9월까지 무려 3년 5개월 동안 차람하다 1757년 9월 6일 밀양 출신의 성호문인 安景漸을 통해 이를 반납하게 된다.<sup>32)</sup> 안경점은 문자청탁 등 무언가 요청할 일이 있어 안산의 첨성리로 갔다가 권상일에게 부치는 이익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1745년 9월 6일, 안군[安景漸]의 아버지[安信亨]는 이현일의 문인인데, 청할 일이 있어 서울에서 안산으로 갔다가 성호를 뵈고 온 것이다. (성호와) 왕래하는 인편이 있다고 하기에 일찍이 빌렸던 고인이 된 정랑 이맹휴의 유소 한 책을 이번 인편에 안군에게 부쳐 보냈다.<sup>33)</sup>

29) 일부 내용은 이익이 지은 이맹휴 행록에 수록되어 있다(李瀼, 『星湖全集』 卷67, <亡子正郎行錄>).

30) 李瀼, 『星湖全集』 卷29, <答鄭持平玄老(癸酉)>(1753).

31) 李瀼, 『星湖全集』 卷29, <答鄭玄老(甲戌)>(1754).

32) 안경점과 안정복-이익 등 성호학과와의 교류는 김학수, 「安鼎福과 嶺南學人의 교류-18세기 중후반 ‘京南’과 ‘嶺南’의 지식문화적 交感」,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2, 9-23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맹휴와의 교유는 이익과의 관계의 확장, 강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크고, 이맹휴를 통한 윤덕희 額書의 수증은 ‘嶺南’과 ‘京南[근기남인]’의 문화적 교류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韓光道 : 근기권 淸臺門人

권상일의 근기권 교유관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대상은 청주한씨 한준겸가의 자손들이었다. 韓浚謙(1557-1627)은 선조가 영창대군의 보호를 부탁한 ‘遺教七臣’의 한 사람이자 仁烈王后의 부친으로서 인조의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 부친 韓孝胤이 화담문인 朴民獻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화담고제 洪仁祐의 아들 洪迪(1549-1591)이 자형이란 점은 가학의 연원이 화담학으로 소급됨을 의미한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류성룡의 종사관으로 활동하는 한편 그 고제였던 정경세와도 긴밀한 교계를 유지했다. 그는 비록 당인으로서의 색채가 비교적 엷었지만 자손들이 남인을 표방하게 되는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sup>34)</sup>

33)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9月 6日>.

34) 아래 자손도에서는 생략하였지만, 한준겸가는 근기남인의 핵심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종규의 처부 尹爾久는 尹善道の 손자, 한종로·종대·종규의 매부 吳始萬은 숙종조 남인의 영수 吳始壽의 종제, 한덕량의 처부 趙九齡은 趙綱의 從孫이었다. 윤선도·조경 등 ‘南人4先生’으로 일컬어진 남인의 영수 집안과 착연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한광도의 조부 韓宗老가 이익의 부친 李夏鎭의 내종형이었으므로 양가 사이에는 선대부터 착연이 있었고, 한종대의 사위 蔡膺全(蔡彭胤의 아들)은 이익의 아들 이맹휴의 처남이 되는 등 연혼·중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익은 韓德師의 문집 서문 및 묘갈명을 찬술했는데, 특히 ‘한덕사묘갈명’에서는 徐敬德⇒朴民獻⇒韓孝胤⇒韓浚謙을 통해 체계를 갖춘 한준겸가[柳川家]의 가학전통을 강조함은 물론 한덕사·덕린 등에 의해 조성된 일가학림을 특정한 바 있다(李滢, 『星湖全集』 卷2, <挽韓直長 德師>; 卷50, <石隱集序>; 卷61, <尙衣直長 韓公墓碣銘> “韓氏之以學爲範 自柳陰先生諱孝胤始 柳陰卽府院君之大人 學禮於朴樗軒民獻 花潭徐先生之適傳也 貽謨垂訓 以至於公 培養非一日也 公有從父弟士昭諱德麟 亦學道深造士 心沾沾顯附 遂同堂講習 嚙唱而箴和 以孝著聞 有大小連之稱).

한준겸의 자손 가운데 권상일의 소유권에 든 인물은 韓德良·德采·德師 및 韓光道이다. 한덕사는 1710년 6월 권상일이 과거 응시를 위해 상경했을 때 이미 교계를 맺은 상태였고, 한덕량·덕채 또한 그 연장 선상에서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바탕 위에서 권상일은 한중대의 묘갈명을 찬술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한덕채를 ‘久從의 벗[從遊最久]’으로 평하며 특별한 친밀감을 표한 바 있다.<sup>35)</sup>

韓浚謙 자손도

韓孝胤	⇒百謙						
	⇒浚謙	⇒會一	⇒以成	⇒斗相	⇒宗老	⇒德鳳	⇒光道
						⇒德麟	
						⇒德良	
						⇒德龍	
					⇒宗大	⇒德采	
						⇒女 蔡膺全	
					⇒宗揆	⇒德師	

한덕량·덕채·덕사와의 관계가 ‘從遊’였다면 이들의 조카 또는 종질인 한광도(1708-1736)와의 관계는 ‘師弟’로 설정할 수 있을만큼 긴밀하면 서도 상보성이 컸다. 두 사람의 상견이 이루어진 것은 1719년 4월 17일이었다. 한광도가 서울에서 사환 생활을 하던 권상일을 찾아온 것인데, 당시 그의 나이 12세였다.

1719년 4월 17일, 진사 韓德良의 조카 壽岳[韓光道の 아명]은 고작 12세의 나이로 明禮坊에서 걸어와 배움을 청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상하여 받아들이고는 『孟子』, 『唐音』을 가르쳤다. 그의 고종사촌 趙興孫도 함께 와서 배운다.<sup>36)</sup>

35) 권상일에게 청문한 이는 韓德采이고, 그 저본이 된 것은 韓德師가 지은 墓誌였다(權相一, 『淸臺集』 卷12, <處士韓公墓碣銘> “相一與公之嗣 從遊最久 一日持其從兄直長德師所撰墓誌 來請碣銘 不敢終辭”).

36) 權相一, 『淸臺日記』, <1719年 4月 17日>.

한덕량 등과의 종유관계가 한광도와와의 사제관계로 확장되고 있는 장면이다. 한광도로부터 받은 첫인상은 호감이었고, 배움을 청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호학의 자질을 간파했던 것 같다. 한광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同患 의식에 바탕하여 救助에 부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720년 2월 12일. 壽岳[韓光道]이 왔는데, 몹시 근심스러운 기색이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예전부터 본가에 빚이 300냥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곧 나라의 돈으로 납부를 독촉받아 재앙의 조짐을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운 집안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그 절박한 사정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sup>37)</sup>

이튿날인 1720년 2월 12일 권상일은 판서 沈檀<sup>38)</sup>을 찾아가 100緡을 빌렸고, 나머지 200민은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한광도 집안의 국채 상환을 도왔다. 이는 두 사람이 의리로는 사제이지만 정리로는 부자에 근접하는 신뢰 형성의 과정으로 포착된다.

1720년 2월 13일. 판서 沈檀을 보러 갔다. 고향에 내려가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 100緡을 빌렸다. 이 집도 매우 가난한데, 우리 둘과 같은 사이가 아니라면 정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나머지 200민은 별도로 마련하여 수악에게 주어 집안의 군색함을 면하게 했더니, 수악의 모친이 계집종을 보내 사례했는데, 도리어 내가 미안할 지경이었다.<sup>39)</sup>

이후 권상일은 가끔 明禮坊에 소재한 한광도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면서 사제간의 거리는 좁아졌고, 한광도 또한 학문과 출처 등을 권상일에

37) 權相一, 『淸臺日記』, <1720年 2月 12日>.

38) 심단은 경제적 기반이 견고했던 尹善道의 외손자였다. 권상일은 심단의 집도 가난하다고 했지만 사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1675년에 작성된 ‘尹善道子女和會文記’에 따르면 ‘沈生員宅衿’, 즉 심단의 어머니 몫으로 상속된 전답과 노비가 적지 않다(『古文書集成』3-海南尹氏篇-, <1675年尹善道子女和會文記>).

39) 權相一, 『淸臺日記』, <1720年 2月 13日>.

게 품의하는 등 師에 대한 믿음이 매우 컸다.

1736년 11월 한광도가 29세로 단명하자 권상일은 제문을 통해 제자를 애도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감회를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또 기록한다.

옛날 내가 벼슬을 시작하여 봉상시 근처에 살 때 군은 고작 12세의 나이로 책을 끼고 왔었지. 군의 誠篤함을 가상이 여겼고, 총명하고 기이함을 사랑하였더니, 번다한 가르침이 없어도 어느새 經史에 박통하였지. 때로는 내게로 와서 온종일 머물다 갔고, 때로는 한 이불을 덮고 잠도 자면서 해가 바뀌도록 행여라도 태만하거나 해이함이 없었지.<sup>40)</sup>

권상일은 한광도에게서 학문에의 진지함과 진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인도했던 것이다.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734년 9월께에도 한광도는 매일 권상일을 방문했고, 공부의 정밀함으로 스승을 놀라게 하곤 했다.

1734년 9월 13일. 際而[韓光道の 字]가 날마다 찾아왔다. 옛 글을 본 것이 자못 정밀하여 몹시 기쁘다.<sup>41)</sup>

그런 문인의 단명은 권상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1745년 5월 이장 사실을 접하고는 참았던 슬픔을 다시 한번 표출하게 된다.

1745년 5월 1일. 韓士祿이 보러 와서 際而[韓光道]의 이장이 초9일로 정해져 모래 옛 묘를 판다고 한다. 목이 메고 슬픔을 견딜 수 없다. 士範[韓德良]에게 편지를 쓰고, 초 한 쌍을 제이의 안사람에게 보냈다.<sup>42)</sup>

지금부터는 권상일과 한광도 사이의 사제관계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광도는 1719년부터 1736년까지 17년 동안 권상일 문하에

40) 權相一, 『淸臺集』 卷10, <祭韓際而文>.

41) 權相一, 『淸臺日記』, <1734年 9月 13日>.

42)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5月 1日>.

서 종학했고, 사제간 지적 수수는 방문 및 서신 왕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광도의 문집은 전하지 않고, 권상일의 『청대집』에는 한광도에게 보낸 답서 6통이 수록되어 있다. 17년의 시간에 비해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사제간의 화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편지의 왕래 기간인 1729~1734년은 出處와 학문을 두고 한광도의 고민이 가장 깊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1726년에 보낸 첫 번째 답서[제1서]의 요점은 독서 및 공부론이다. 한광도는 독서의 범주와 차제를 물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권상일은 사심을 제거하고 『중용』을 숙독할 것을 권유했다.<sup>43)</sup> 아울러 문장은 小技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서를 근본으로 하여 주자·퇴계서로 그 외연을 확장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sup>44)</sup> 결국 그의 가르침은 주희→이황으로 이어지는 학문 체계를 주입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장에 대한 경계는 과거 욕구에 대한 선제적 차단으로 읽힌다.

1729년의 두 번째 답서[제2서] 또한 독서 및 공부론에 관한 것이지만 연령의 증가와 공부의 진보를 반영하듯 질문과 대답의 수준이 점차 구체화 되는 느낌이다. 당시 한광도는 22세로 과거를 통한 출사와 ‘學問’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이 따랐을 시기였다. 짐작컨대, 한광도는 外物에 동요하지 않고 공부에 전일하는 방법, 즉 구습의 병통을 제거하는 요체를 물었던 것 같다. 이에 권상일은 잡서를 배격하고, 경전에 공력을 쏟을 것을 권고했는데, 司馬遷의 『史記』나 班固의 『漢書』도 잡서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아가 권상일은 한광도의 好奇의 기질이 문장의 유혹에 이끌려 도의의 마음을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sup>45)</sup>

43)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丙午)>(1726) “臆意袞袞 讀之可尙 今人不及古人 只緣多少私意橫生肚裏 種種病痛 皆從此發 賢須澄治此心 而熟讀唐學 如何”

44)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丙午)>(1726) “文章固是餘事 況詩是文之一小技耶 經書外 將朱子退溪兩集 仔細看讀 則其受用得力尤緊也”

45)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靜坐時 心似喜悅 而出門接物 便覺失去者 此無他 只是工夫不熟 中心未能浹洽之故也 初學安能無此箇病耶 除却雜書 只將經籍 今日看讀 明日看讀 久久不已 則頓覺聖賢言語行事 慣熟於自己心眼之間 其味無窮 其樂無涯 而凡他班馬諸書 自覺少意味 有不欲讀矣 公本來好氣質 且占得利

문장에 있어서도 의리가 본령임을 확신했던 권상일이 가장 경계한 것은 『史記』·『漢書』 등의 史書 및 韓愈·歐陽脩의 글이었다.

저 司馬遷이나 班固의 문장은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고 기묘한 듯 하지만 道理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읽을만한 것이 못되며, 韓愈나 歐陽脩의 경우 性을 논하면서 저지른 실수는 감히 程子·朱子 등 제 군자에 비길 수조차 없으니 공은 어찌하여 정주의 공부를 따르지 않고 저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가? … 금일 공부는 매일 유가의 문자를 취해 반복 완미하고, 操存·省察의 공정에 더욱 마음을 더하여 유가의 意味가 점차 깊어지게 된다면 妄念들 또한 점차 경감되어 마침내는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sup>46)</sup>

결국 권상일이 경계했던 好奇는 사마천·반고·한유·구양수 등 사가 및 문장가들의 違道性이었고, 정주학에 대한 침잠을 통해 본원공부로의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다.

사제의 문답은 과거라는 현실의 문제로 넘어간다. 한광도는 ‘과거’와 ‘학문’에 대한 병행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권상일은 난색을 표한다. 표면적 이유야 다소 병약했던 한광도의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住脚이 굳게 정해지지 않고, 立志 또한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라는 명예와 이익의 길에 나아가게 되면 학인으로서의 본체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sup>47)</sup> 결국 권상일은 한광도의 응시를 만류하는 가운데 韓孝翁<sup>48)</sup>준점으로 이어지는 ‘柳川家學’의 착실한 계승자가 되어 줄

---

欲分數不多 而惟是年少好奇之故 時有要學文章底心 侵奪要學道義底心 纏繞附着 年歲浸久 雖欲強勉排去 而留在丹田一邊 時復出來 此是沉痾難醫之疾 若未服對症之藥 而直截欲去 則將見終不去得而別生他病也”

46)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彼遷固之文 雖若侈 麗雄奇 而違道背理不足觀 畢竟事業果何如 至如韓歐 則果爲彼善而無頭之評 論性之失 不敢比擬於程朱諸君子 公何若不爲此而爲彼耶 … 爲今日工夫 莫如日取儒家文字 此是對症之藥 反復玩味 而尤加意於操存省察之工 見得此邊意味漸重 則那箇妄念 漸漸輕減 以至於無矣”

47)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而公之住脚 未能十分堅定 立志未能十分牢固 況處聲利場中 易被人濡染撓奪 必須簡絕交遊 或擇其有此邊意思人 時時談論講磨 則必有所益矣”

것을 성원했던 것이다.<sup>48)</sup> 아울러 조금의 거리낌 없이 신변상의 고민과 고충을 자신에게 토로하고 의견을 구한 것에 감사했다. 한광도를 근기권 청대문인의 핵심 인물로 상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상일은 답서의 말미에서 이익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성호 이공께서 막 벼슬길에 올라 입성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조용한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은 제가 지금껏 존경해 왔는데, 작년에는 이래 저래 소식을 전하지 못한 터라 편지를 보내 마음을 표하고자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행여 들을만한 말이 있으면 편지로 제게도 전해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sup>49)</sup>

1729년은 한광도가 이익을 종유하면서도 성호문화에 정식으로 입문하지는 않은 시기로 보이는데, 다음 답서에서 권상일은 이익을 찾아가 問業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세 번째 답서[제3서]는 연조가 표기되지 않았는데, 네 번째 답서[제4서]의 연조(1732년)를 고려할 때 1729-173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답서의 요점 또한 과거와 학문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한광도를 학문의 길로 이끄는 데 있다. 다만, 과거에 대한 만류의식은 前書에 비해 다소 누그러져 있다.

편지는 『中庸』 공부의 효험을 묻는 것에서 시작하여 과거와 학문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건드린다.

요사이 과거가 인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극에 달했다. 총명하고 근독한 수많은 선비들이 죄다 이 길을 따라 나가니 몹시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資稟과 志操가 매우 훌륭한데다 가학의 연원이 있으니 본분 사업에 뜻을 두어 진실로 공부하여 능히 선대의 뜻을 잇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

48)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竊看公必欲不失乎家學淵源之傳 不負了直長兄期望之意”

49)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星湖李公 筮仕入城云 想必從容誨晤 斯人素所慕用 而昨年交違未奉 欲一書致意 而尙未果可恨 幸有可聞之語 因書示來 如何”



이겠습니까?<sup>50)</sup>

이처럼 권상일은 ‘家學淵源’, ‘本分事業’, ‘진실한 공부[眞實做去]’라는 키워드로써 한광도의 진로를 제안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한편 과거에 대해서는 다소 타협안을 제시한다.

어머니를 모시는 처지에서 자신의 뜻만으로 과거 공부를 폐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經書를 근본으로 삼고 史家의 여러 서책들을 보완으로 삼아 나의 견식을의當하게 하고, 의리를 분명하게 한다면 자연히 좋은 문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유가의 사업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위와 같이 한다면) 과거 또한 저절로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北溪[陳淳]와 雙峯[饒魯] 두 사람의 설이 매우 타당하면서도 의미가 있어 별지에 베껴 보내니 유의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51)</sup>

권상일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봉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부정하지 못한다. 자신과 같은 과거 출신이 상대에게 과거의 신중성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개인적 사정으로 과거를 단념할 수 없다면 경서를 근본으로 삼아 공부하는 것이 과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모호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의 본의가 과거를 그만두고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廢舉進學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편지의 말미에서 성호 문하 입문을 권유한 것은 그런 본의의 우회적 표명으로 읽힌다.

星湖 이공은 林泉에 은거하여 학문에 독실한 나머지 반드시 그 효험이 다른 이들에게 미칠 것이니 자주 찾아가 학업을 질문하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어진 師友

50)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 “今世科業之壞了人材極矣 許多聰明勤篤之士 盡從此路去 殊可慨惜 而亦沒奈何 惟左右資稟志操 合下甚美 且有家學淵源 若留意於本分事 眞實做去 克繼先志 則豈不甚善”

51)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 “但侍奉下 似不可任意斷置科工 須以經書 爲根本 補以史家諸書 使吾見識的當 義理分明 則自然生得好文辭來 … 蓋儒家事業 非爲科舉 而科舉亦自至此當然之理也 北溪雙峯兩說 甚切當有味 故別紙寫去 幸加意覽過如何”

없이 성취한 이가 매우 적을지니 하루를 가서 물으면 반드시 하루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sup>52)</sup>

권상일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광도는 이 무렵부터 이익과 제례·상례 등 의례를 문답하며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sup>53)</sup>

전서(제3서)에서의 가르침과 권유 때문이었을까. 1742년의 네 번째 답서[제4서]부터는 양인의 서신 담론에서 과거는 더 이상 화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요즘 연일 『대학』을 읽고 계신다고 하니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주자께서 ‘나는 대학에 공을 매우 많이 들었는데, 평생의 정력이 죄다 이 책에 모아져 있으며, 『논어』·『맹자』·『중용』에는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그대도 이 책을 久遠家計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읽을 때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완미하여 사사로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읽은 뒤에야 성현의 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54)</sup>

이 무렵 한광도는 『대학』 공부에 전념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알렸던 것 같고, 권상일은 몹시 기뻐하는 가운데 『대학』을 ‘久遠家計’, 즉 학문적 家業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는 가운데 독서의 방법론으로서 ‘虛心玩理’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는 한광도의 학업이 본래에 올랐음을 뜻했고, 그 기저에는 권상일의 부단한 勸誡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한광도는 권상일을 향한 비방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에도 스스럼

52)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 “星湖李公 林居篤學 必有以及人者 頻往問業甚好人無賢師友而能成就者甚渺 若一日往問 則當有一日之益也”

53) 李瀾, 『星湖全集』 卷29, <答韓際而光道(己酉)>(1729); 卷29, <答韓際而(壬戌)>(1742).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한광도의 성호문하 입문은 권상일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최근 강세구는 「星湖門人錄 試案」(『성호학보』 26, 성호학회, 2024, 623쪽)에서 한광도를 성호문인으로 입전했다.

54)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壬子)>(1732) “承知連讀大學 甚善甚善 晦翁有曰 某於大學 用工甚多 平生精力 盡在此書 論孟中庸 却不費力 … 幸以此一部 爲久遠家計 如何 讀時須虛心玩理 勿把吾私意看去 然後可得聖賢之本旨”

이 없었다. 1732년 3월 권상일은 金一鏡을 역적으로 호칭하지 않고 관작명을 붙였다는 이유로 탄핵된 金倣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방자한 행위로 규탄받은<sup>55)</sup> 일이 있었는데, 비방의 목소리는 이 사건에 따른 일각의 비난을 지칭한다. 피차간의 시비를 떠나 권상일은 한광도의 전언에 귀를 기울였는데,<sup>56)</sup> 이는 師友責善의 한 장면으로 포착된다.

이후 한광도는 ‘虛靈說’과 관련하여 문답하는 한편 사망하기 두 해 전인 1734년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술한 『청대일기』(1734.09.13.)의 기사가 대변하듯 이 한광도는 권상일이 서울에 체류할 때면 매일 방문하여 식견의 정밀함으로써 지적 기쁨을 토해곤 했다. 그는 학문적 진보를 자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밀려드는 번다한 家務에 큰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 권상일에게 그 해법을 자문했던 것이다. 당시 한광도는 청주한씨 韓浚謙家의 종손이라는 종족적 지위로 인해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권상일로서도 특별한 묘책은 없었던 것 같다. 범론적 형식에 위로의 정서를 담은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사를 처리할 때는 마음을 일에 집중시키고, 서책을 읽을 때는 마음을 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 家務가 비록 번다하지만 그 틈을 살려 독서하되, 두 세장씩 일과로 정해 玩繹하고 溫習하면 저절로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학문을 하는 것은 오로지 독서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삶과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것이 의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서 대처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실로 공리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sup>57)</sup>

55) 『英祖實錄』, <英祖 8年 4月 12日(己亥)>.

56)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壬子)>(1732) “際來時謗 向已略聞 平生拙於持身 謹於避嫌 杜門自守 少與人干涉 故人亦不爲是非矣 不幸輕罹世累 妄論時政 博取無限嘲謗 其不察實事而謗之者 固無足怪 而祗緣素不見信於人 有以致此 自聞此報以來 驚懼愧赧 不覺流汗之沾背”

57) 權相一, 『淸臺集』 卷9, <答韓際而(甲寅)>(1734) “酬應家事時 心一於事 看讀書冊時 心一於書 … 家務雖煩 擇其閒隙讀書 而以二三章 定作日課 玩繹溫習 則自有所得矣 況爲學不專在讀書 雖日用常行酬應事物上 審擇其合義與否而處之 實爲窮理之一端”

한광도 또한 특별히 묘책을 구하려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었던 현실의 암울함이었고, 그런 상황의 공유를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던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호 신뢰’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더 이상의 서신 왕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736년 11월 한광도가 사망함으로써 사제관계 또한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18세기 초반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의 학문적 교류 양상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과 전통적인 사환가의 자제를 학문의 장으로 인도하여 착근시키는 권상일의 학자적 역량을 확인하는 역사적 장면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3. 洪重寅·洪儒漢 : 花潭淵源과의 文獻 및 文字 교유

권상일이 교유했던 근기남인 가운데 문벌적 기반이 가장 견고했던 것은 홍산홍씨 洪履祥家였다. 권상일과의 교유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은 6자 洪蠶의 증손 洪重寅(1677-1752)·重徵(1682-1761), 장자 洪霧의 5세손 洪儒漢(1726-1785)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홍이상은 화담문인 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한 전형적인 화담학통이었다. 한때 남명문인 崔永慶을 종유한 바 있지만 민순을 神明처럼 섬겼다는 말이<sup>58)</sup> 대변하듯 사승관계의 機軸은 徐敬德 ⇨ 閔純으로 이어지는 화담학통이었다. 1612년 개성유수 재임 때 서경덕을 위해 花谷書院의 건립을 주선하고,<sup>59)</sup> 민순의 봉안문을 직접 찬술한

58) 洪履祥, 『慕堂集』附錄,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行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府君言行錄> “二十歲後 始爲向學而未知其要 與親友往拜於杏村閔先生門下 先生知誠心爲己 卽教以大學書 至於小註盡爲受讀 句句致力 無一字閑過 且學存心靜養之義 用盡心力 … 從遊於守愚 卽崔永慶 門下 而專意杏村 如事神明”; 附錄, <行狀> “公學於杏村閔先生 而杏村之學 出於花潭徐先生 其學問淵源 有自來矣”

59) 洪履祥, 『慕堂集』(上), <花潭謁廟有感>; 『慕堂集』(下), <開城府啓辭 壬子留守時>.

것은<sup>60)</sup> 연원의식의 구체적 표명이었고, 1688(숙종14) 고양의 文峯書院에 민순[杏村]과 함께 제향됨으로써<sup>61)</sup> 행촌 문하 고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

학통을 고려할 때, 홍이상은 동인에 속했지만 그 자손들은 서인과 남인으로 분화했다. 장자 洪霧 및 6자 洪灝 계통은 남인이었고, 4자 洪霽 계통은 서인[노론]을 표방했는데, 정조의 외조 洪鳳漢은 홍영의 현손이 된다.

남인계 중에서도 가장 현달한 인물은 숙종~경종조에 한성판윤·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했던 洪萬朝(1645-1725)였다. 그는 선조의 부마 吉城尉 權大任의 손자로 탁남의 영수 吳始壽와는 동서간이었고, 자손들 또한 申厚載家, 權畝家, 陸來善家, 尹善道家 등과 혼맥을 맺음으로써 숙종~영조연간 근기남인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에 3자 홍중인이 이익·권상일과 교류하는 등 학문적인 두각을 드러냄으로써 홍만조 일가가 남인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홍중인·중징 형제의 요청으로 이익이 홍만조의 ‘묘갈명’을,<sup>62)</sup> 李玄逸의 문인으로 영조조 영남남인을 대표했던 趙德鄰이 묘지명을<sup>63)</sup> 찬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홍중인·중징 형제와의 교류가 확인되는 것은 1748년 정월이다. 당시 권상일은 승지에 재직하고 있었고, 어가 호종 또는 능침 봉심에 따른 관복 등을 홍중징에게 스스로없이 빌리는 것에서 그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다.

① 1748년 1월 17일. 내일 어가를 호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朝服·黑袍를 영해부사 洪錫余[洪重徵] 영공에게 빌렸다.<sup>64)</sup>

60) 洪履祥, 『慕堂集』(下), <習靜先生位版奉安祭文 姓閔諱純字景初號杏村 官至掌令通禮>.

61) 朴世采, 『南溪集』 卷70, <高陽文山書院奉安四先生祠祭文(戊辰)>.

62) 李瀾, 『星湖全集』 卷61, <判敦寧府事貞翼洪公墓碣銘>.

63) 趙德鄰, 『玉川集』 卷14, <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世弟左賓客晚退堂洪公墓誌銘>.

64) 權相一, 『淸臺日記』, <1748年 1月 17日>.

② 1748년 1월 29일. 서둘러 아침을 먹고 홍석여 영공에게 淺淡服을 빌려 능침을 봉심하는 길을 나섰다.<sup>65)</sup>

洪履祥 자손도						
洪履祥	⇒霧	⇒柱一	⇒萬始	⇒重叙		
				⇒重明	⇒昌輔	⇒儒漢
	⇒雲					
	⇒雲					
	⇒雲				⇒鳳漢	⇒女 莊祖
	⇒薄					
	⇒霍	⇒柱文				
		⇒柱天	⇒萬元			
			⇒萬朝	⇒重亨(佐郎)		
				⇒重休(校理)		
				⇒重寅(都正)		
				⇒重徵(判書)		

권상일이 지적 담론에 갈급했던 대상은 형 홍중인이었다. 홍중인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충주에 거처를 마련하여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여 『鵝洲雜錄』, 『四七辨證』, 『東方詩話』 등의 저술을 남겼다. 이익 또한 그의 묘갈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한편 만년에 이르도록 후진 양성에 주력하여 碩德을 뜻하는 ‘靈光’이라는 예칭까지 얻은 사실을 특서하고 있다.<sup>66)</sup> 뿐만 아니라 이익은 『鵝洲雜錄』에 대해서는 ‘저술의 중립적 태도’를 극찬했고,<sup>67)</sup> 『四七辨證』에 대해서는 ‘종기를 빼내 듯 시

65) 權相一, 『淸臺日記』, <1748年 1月 29日>.

66) 李瀾, 『星湖全集』 卷61, <敦寧府都正洪公墓碣銘 并序>.

67) 李瀾, 『星湖全集』 卷6, <挽洪都正亮卿 重寅> “軌範承家留寶樹 風儀溢世看春楊 鵝洲

원스럽고 醇正한 이치로 귀결시킨 역저'<sup>68)</sup>로 평가했다.

홍중인의 여러 저술 중에서도 권상일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이 『鵝洲雜錄』이었다. 107권 47책에 이르는 이 저술은 선유들의 문집 및 기타 저술에서 정치 및 斯文의 중요 사안을 뽑아서 편찬한 당론서 계열의 역사총서라 할 수 있다. 인용 문헌은 16~18세기에 편간된 석학들의 문집 및 잡록으로 『東臯集』(李浚慶)·『南冥集』(曹植)·『栗谷集』(李珣)·『西厓集』(柳成龍)·『愚得錄』(鄭介清)·『退門諸子錄』·『愚伏集』(鄭經世)·『三淵集』(金昌翁)·『明谷集』(崔錫鼎) 등 100중에 이르며, 초록의 대상은 정치적 견해나 입장이 피력된 상소·차자·서간·행장·일록 등 다양하다.<sup>69)</sup>

홍중인이 『鵝洲雜錄』을 편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익이 그의 묘갈명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다.

당파가 출현한 이후로 기록들이 서로 몹시 편향된 것으로 여겨 양측의 기록에 서 취사하였으니, 『鵝洲錄』 30권이 그것이다.<sup>70)</sup>

즉, ‘당론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평론서의 편찬’이 저술의 동기였던 것이다.<sup>71)</sup> 후술하겠지만, 이익이 홍중인의 만사에서 언급한 ‘형평을 얻은 견해[秤衡見]’라는 평가는 권상일로부터도 일정한 동의를 얻게 된다.

권상일에게 『아주잡록』을 차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1748년이었다. 서울을 왕래하던 인편을 통해 조만간 『아주잡록』 아홉 권을 보내올 것이라는 기별을 접한 것은 1748년 윤7월 19일이고, 저자에게

錄上秤衡 會有真心識大方見”

68) 李滉, 『星湖全集』 卷54, <四七辨證跋> “若拔疔括膜 一歸於順正 卽吾學之一幸也”. 이익과 홍중인은 理氣說 등을 주제로 서신 토론을 벌인 바 있다(李滉, 『星湖全集』 卷15, <答洪亮卿重寅(庚午)>(1750), <答洪亮卿>).

69) 장서각 소장 『鵝洲雜錄』의 청구기호는 K3-650이고,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장서각’, <鵝洲雜錄> 해제, 참조.

70) 李滉, 『星湖全集』 卷61, <敦寧府都正洪公墓碣銘 并序> “嘗謂黨立之後 記載偏頗 遂取舍於其間 有鵝州錄三十卷”

71) 이익은 『아주잡록』의 분량을 30권으로 기술했는데, 현존하는 107권 47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회송한 것은 1752년 2월 1일이었다. 짐작컨대, 총 아홉 권 분량에서 일부분씩 순차적 반납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1752년 2월 1일, 도정 洪亮卿[洪重寅]에게 답장을 쓰고, 『아주록』 두 권도 함께 보냈다.<sup>72)</sup>

3년 6개월을 상회하는 차람 기간 동안 권상일은 『아주잡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서간은 『아주잡록』을 차람하던 초기에 보낸 것이지만 권상일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아주록』은 겨우 한번 정도 보았을 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손님을 맞이하느라 자세하게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 머리의 付標한 말은 참작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당론이 생긴 이래로 피차를 막론하고 賢哲하거나 크게 드러난 인물조차도 자기 편이 아니면 지나치게 배척하고 자기 편이면 애써 두둔함으로써 公平하고 寬和한 논의가 사라진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sup>73)</sup>

권상일은 『아주잡록』을 黨同伐異의 폐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한 저술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의 평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권상일의 논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이 답서의 말미에서 ‘四七錄[四七辨證]’의 차람을 요청하는 가운데 『아주잡록』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두 책자는 말씀하신 바에 따라 당신의 손자 편에 부쳐드립니다. 아직 얻어 보지 못한 것이 8-9권이고, 그 가운데 사칠록은 더욱 일람하고 싶지만 길이 멀어 빌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공의 이 저술[『아주잡록』]은 세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장래에 논의가 歸正되려면 마땅히 백세의 뒤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sup>74)</sup>

72) 權相一, 『淸臺日記』, <1752年 2月 1日>.

73) 權相一, 『淸臺集』 卷7, <答洪良卿>.

74) 權相一, 『淸臺集』 卷7, <答洪良卿>.



권상일은 『아주잡록』을 논의의 공정성에 바탕하여 世敎를 扶植할만한 저술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홍중인이 사망한 것은 1752년 12월 20일이었다. 『아주잡록』을 회송한지 10개월 뒤였다. 1753년 2월 8일 부음을 뒤늦게 접한 권상일은 이날 일기에 ‘줄기’ 형식의 기사를 남긴다.

1753년 2월 8일. 전번에 子循[李達中]을 만나 들으니 원주 홍양경 영공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별세했다고 한다. 몹시 슬프다. 그는 『아주잡록』 외에 『辨疑錄』 한 책을 지었는데, 安邦俊이 날조하고 무고한 말을 날날이 밝혀 변화했다고 한다.<sup>75)</sup>

당론의 시대에도 저술의 공정을 기하려 했고, 杜撰에 대해서는 변과를 서슴지 않았던 홍중인의 학자적 식견과 용단에 깊은 信認을 표하고 있다. 안방준의 날조와 무고는 成渾과 李珥의 변무서인 『混定編錄』(18권 10책)으로 추정된다. 당시만해도 이 저작은 미간행 稿本이었으며, 1773년에 초간된 『隱峯全書』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권상일과 홍유한과의 만남은 1747년 11월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권상일은 근기남인계 자제들과의 酬應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홍유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747년 11월 21일. 양재 찰방을 비롯하여 서소문 밖에 사는 벗들인 李惟泰·奎泰, 洪儒漢, 朴春雨 등이 보러왔다.<sup>76)</sup>

이때까지도 초면인 탓에 홍유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는데, 趙重普의 귀뜸은 홍유한을 이해하는 매우 살가운 정보가 되었다.

奎輔[趙重普]의 말을 들어보니, 홍유한 군은 나이가 고작 스무 살에 지나지 않았지만 해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유구의 산천과 길의 里數를

75) 權相一, 『淸臺日記』, <1753年 2月 8日>.

76)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11月 21日>.

자세히 안다고 하여 물어본 즉,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했다고 한다.<sup>77)</sup>

홍유한은 효행으로 1724년 정려를 하사받고, 1726년 지평에 추증된 洪重明의 손자였다. 홍중명의 효행 사실은 아들 洪昌輔(1679-1757)가 편찬한 『救血錄』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그 발문을 쓴 李衡祥은 홍중명의 지우였다.<sup>78)</sup>

홍창보는 뚜렷한 사회적 직함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익·안정복 등과 친교가 있었다. 특히 이익은 홍중명의 ‘효자정려기’와 홍창보의 ‘묘지명’을 찬술했는데,<sup>79)</sup> 그 표제에서 ‘篤行洪公’이라 한 것을 보면 홍창보의 행의를 족히 짐작할 수 있다.

이익은 홍유한과도 교유하는 과정에서<sup>80)</sup> 학식과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다. 1757년 홍창보의 초상 때 지은 만사에서는 ‘못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진 아들이 있다’고 했고,<sup>81)</sup> 尹東奎에게 보낸 서간에는 홍유한에 대한 강한 신뢰가 투사되어 있었다.

나의 벗 洪儒漢은 나와는 오래 사귄 사람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났으니 다른 사람이 이끌지 않아도 과거에 응시할지 여부를 그가 어찌 스스로 유념하지 않겠습니까.<sup>82)</sup>

홍유한은 1747년 11월 21일 권상일과 상견하기가 무섭게 문자 청탁을 위해 다시 찾아오게 된다. 『救血錄』의 발문[再跋]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익에 비견되는 권상일에 대한 신뢰가 청문으로 이어졌고, 初跋의 찬자가 권상일과의 교계가 깊었던 이형상이라는 사실도 고려된 측면이

77)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11月 21日>.

78) 李衡祥, 『瓶窩集』 卷13, <題救血錄後>.

79) 李滉, 『星湖全集』 卷53, <洪孝子旌閭記>; 卷64, <篤行洪公墓誌銘>.

80) 李滉, 『星湖全集』 卷4, <別洪士良 儒漢>; 卷5, <謝洪士良寄唐柚子>; 卷32, <答洪士良 (壬申)>(1752).

81) 李滉, 『星湖全集』 卷6, <挽洪聖文 昌輔> “有子稱賢人不間 無營得壽世爭欽”

82) 李滉, 『星湖全集』 卷21, <答尹幼章(庚辰)>(1760).

있었다.

浣溪 李明卿이 일찍이 효자 홍공의 실기를 언급하면서 瓶窩翁[李衡祥]이 홍공을知己의 벗으로 삼아 오래도록 서로 존경했다고 한다. … 정묘년(1747) 겨울 서울의 서문 밖에 우거하고 있을 때 홍공의 손자 惟漢[儒漢의 오기]이 『救血錄』한 질을 받들고 왔다. … 병와옹이 또 銘과 誌를 찬술하여 그 행적을 빠트림 없이 자세하게 담았으니, 亡友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만하다. 어진 아들이 있어 그 뜻을 능히 잇고, 손자 또한 博洽하여 장래의 희망이 있으니, 이 모두 가상히 여길만하다. 이런 뜻을 권말에 삼가 기록하여 세상의 아들된 이들로 하여금 본받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한다.<sup>83)</sup>

권상일은 홍유한을 전도가 유망한 博洽한 지식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평가는 이익·조중보 등 근기학인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비록 홍유한과는 학문적인 담론은 없었지만 상견 및 문자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홍유한과의 관계 또한 이익을 비롯한 성호문파와의 교류라는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컸고, 그것은 권상일 개인을 넘어 ‘경남’과 ‘영남’의 활발한 연대와 제휴의 구체적 장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4. 李益熙 : 退溪學에 대한 지적 공감

이익희는 선조의 7자 仁城君 李珣의 현손으로 종실가의 자제였다. 증조 海原君 李健은 1628년부터 1635년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인정과 물태를 적은 ‘제주풍토기’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sup>84)</sup>

이익희는 이서의 문인으로 이익·권상일과는 종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83) 權相一, 『淸臺集』 卷11, <書救血錄後>.

84) 李健, 『葵窓遺稿』 卷11, <流竄記>; 卷11, <濟州風土記>. 이건은 효종의 명으로 폐질에다 후사까지 없었던 백형을 대신하여 인성군의 중통을 물려받은 인물이기도 했다(權尙夏, 『寒水齋集』 卷31, <<海原君 健 墓表>> “長兄有廢疾無子 仲兄出爲順和君後孝廟特循郡夫人宿願 以公承宗事 公涕泣固辭不得命 憂吉 以海原正襲封爲君”).

파악된다. 인성군 사건 때 鄭蘊이 全恩論을 주장하고, 柳碩 등이 그의 친구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sup>85)</sup> 이 가계가 남인계로 편입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으로 읽히고, 숙종조 남인정권의 당로자로서 이 조판서를 지낸 閔黈의 손자 閔彦謙이 이익회의 고모부라는 점 또한 근기남인에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영남과의 혼맥인데, 이익회의 조모[조부 花昌君 부인]가 바로 상주 출신인 盧景命의 딸이었다. 즉 해원군은 盧守愼의 증손 盧景命과 친교가 깊었고, 그 연장 선상에서 그 딸을 자부로 맞았던 것이다.<sup>86)</sup> 따라서 이익회에게 상주는 조부의 처향이라는 연고가 있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익회는 이서의 문인이었다. 이익 또한 그를 옥동문인으로 기억했고, 자신과는 ‘四七說’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던 학우로 기록하고 있다.<sup>87)</sup> 뿐만 아니라 이익은 이익회를 통해 李栻이 전설[堂室銘]을 수정한 사실을 인지하는<sup>88)</sup> 등 학계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익회를 익우로 인식했고, 사우간의 서간에서도 그에 대해 호평하며<sup>89)</sup> 깊이 신뢰했던 것이다.

『청대일기』에서 이익회는 1745년 5월부터 1747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4회 포착된다.<sup>90)</sup> 기사도 ‘답장을 썼다’, ‘안부편지를 받았다’, ‘한나절 동안 대화했다’, ‘조용히 대화하였다’ 등 매우 소략하여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청대집』에는 이익회에게 보낸 서간이 실려 있다. 비록

85) 김학수, 「진주유씨 청문당가(淸聞堂家)의 정치·사회·문화적 존재양상 : 조선 후기 근기남인가(近畿南人家)의 굴절과 명암」, 『성호학보』 21, 성호학회, 2019, 85-88쪽.

86) 盧景命도 해원군 만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李健, 『葵窓遺稿』 附錄, 〈輓詞〉(盧景命) “那知不教膝下懸 又作君家冢子婦 相親不啻托朱陳 泛愛還蒙惜衰朽”).

87) 李瀾, 『星湖全集』 卷6, 〈挽汝謙〉 “玉洞先醒門下士 金枝後裔意中人 … 四七書留和淚閱 歸鴻社鷺摠傷神”

88) 李瀾, 『星湖全集』 卷19, 〈答尹幼章尹源明東策庚申〉.

89) 李瀾, 『星湖全集』 卷17, 〈答洪紱一〉 “然李斯文汝謙舊故中可人 執事無此行 幾乎爲失人矣 日與周旋 歡洽可掬 恨不得旁聽其緒論也”

90) 權相一, 『淸臺日記』, 〈1745년 5월 9일〉, 〈1745년 5월 13일〉, 〈1747년 3월 28일〉, 〈1747년 4월 18일〉.

두 통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서로에게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두 서간의 시점은 1745년 무렵이고, 왕래된 공간은 서울이었다. 이익회와의 지적 대화는 ‘退溪學的 공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저는 품성이 졸렬하여 평생 동안 합치됨이 적어 비록 사문의 宿德인 星湖翁과 같은 분과도 논변을 거듭하던 중 서로 어긋남이 많았습니다. 의리는 무궁하여 자신의 견해만을 옳다고 할 수 없어 늘 개탄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니다. 다행스럽게도 집사를 만나 片言조차도 자연스럽게 합치되니 어찌 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 가만히 살펴보건대, 우리 동방의 학인들은 모두 퇴도 선생을 존경하지만 선생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선생의 도로 도로 삼지 않는다면 이는 제대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삼가 바라건대, 자신이 들은 것만을 높이고, 자신이 아는 것만을 고수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이들까지 이끌어서 하나로 귀일되게 한다면 또한 어찌 후학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sup>91)</sup>

여기서의 ‘합치’는 ‘사칠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익파의 견해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옥동문인 이익회와의 지적 합일은 권상일에게 큰 위안과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은 오행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sup>92)</sup> 가운데 1745년에는 권상일이 이익회의 저작 ‘分合論’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학문적 수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

‘分合論’ 한 편을 지금 보낸 아이 편에 부쳐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sup>93)</sup>

이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담론이 더 지속되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추적은 여의치 않다. 앞에서 분석한 황운대가 이익의 입론에 바탕하여 권상일을 향한 다소 비판적인 논담을

91) 權相一, 『淸臺集』 卷9, <與李汝謙益熙>.

92) 權相一, 『淸臺集』 卷9, <與李汝謙益熙> ‘別紙’.

93) 權相一, 『淸臺集』 卷9, <答李汝謙益熙(乙丑)>(1745).

펼친 반면 이익회는 권상일의 입론에 동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계학설’을 順容하는 입장을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 5. 柳發·柳徠·李漢訥 등 제 근기권 학인

### : 근기남인계 학인의 知的 온축에 대한 응시와 수렴

근기권 인사 가운데 주목할 인물로는 유발·유래·이한눌 등 10여 명을 꼽을 수 있다. 유형원·유명현·이수광·조경·정중휘·이덕형·이성중·오광운·허후 등 17-18세기 근기남인 핵심 집안의 자제들이라 할 수 있다.

柳發과의 만남은 1748년 2월 21일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유형원의 증손이었고, 조부 柳暉는 영남의 김천 萬曆洞으로 낙향했던 裴尙諭의 사위였다. 유형원가는 배상유와의 척분 외에도 영남과의 관계가 깊었는데, 유하가 李玄逸에게 『반계수록』의 서문을 청하는 과정에서<sup>94)</sup> 葛庵門人이 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유발과의 대담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역시 『磻溪隨錄』을 비롯한 유형원의 제 저술이었다.

1748년 2월 21일, 도제동 진사 柳發이 찾아왔다. 이 사람은 반계 유형원의 후손이다. 반계공은 『반계수록』 13권이 있는 데다 평소에 저술한 것이 많아 무려 70여 권이나 된다고 했다.<sup>95)</sup>

물론 『반계수록』 간행과 관련해서는 유발이 이익과 상의하여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은 이를 개혁적 創案으로 극찬하며<sup>96)</sup> 서문까지 찬술하게 된다.<sup>97)</sup> 따라서 『반계수록』 간행에 따른 제반 절차와 양식은 이

94) 李玄逸, 『葛庵集』 卷20 <遁庵柳公隨錄序> “己巳秋 余在京師 公之胤子呈復申裴君之請 謂玄逸盍序其書而傳之 玄逸不敢當 而念裴君今不可見 而柳君之請甚勤 亦不得辭也 於是論其梗槩 附 于書首 以告後之觀者”

95) 權相一, 『淸臺日記』, <1748年 2月 21日>.

96) 李漢, 『星湖全集』 卷16, <答柳判官(戊寅)>(1758).

97) 李漢, 『星湖全集』 卷50, <磻溪隨錄序>.

익 등 성호문파에 의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발이 권상일에게 간행 계획을 통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1757년 11월 13일, 유발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 사재를 모아 내년(1758) 2월 초1일에 鑄字를 써서 간행을 시작할 계획이라 한다.<sup>98)</sup>

이것은 권상일 개인에 대한 통지를 넘어 ‘유형원과 배상유’, ‘이현일과 유하’를 통해 구축된 對嶺南 공조관계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당시 영남의 대표적 학자·관료로서 이익과도 친교가 깊었던 권상일에 대한 통지는 곧 대 영남 공지로 간주할 만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래는 이른바 ‘睦閔柳3家’로 일컬어지며 濁南의 주축을 이룬 진주유씨 집안의 자제였다. 부친 유명현도 정치적 역할이 컸지만, 특히 백부 유명천은 숙종조 두 차례의 남인정권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점했던 인물이다.<sup>99)</sup> 이현일과 함께 17세기 남인학계를 이끌었던 丁時翰은 그의 고모부였고, 18세기 문단 및 예단의 거장이었던 姜世晄은 질서였으며, 이익의 문인으로 『星湖言行錄』을 찬술한 柳慶種(1714-1784)은 조카였다.

이 집안은 서울 明禮坊의 京第와 안산 釜谷의 鄉第를 이원적으로 경영하였으나 18세기 이후로는 안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일문의 종가로 기능했던 부곡의 ‘淸聞堂’은 이른바 ‘만권당’으로 불릴만큼 규모와 방대함에 더해 귀중본 서책이 많았다. 이 珍藏들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은 이익이었다. 청문당 장서를 성호학의 육성과 진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8) 權相一, 『淸臺日記』, <1757년 11월 13日>.

99) 김학수, 「진주유씨 청문당가(淸聞堂家)의 가계와 정치·사회·문화적 전개: 조선 후기 근기남인가(近畿南人家)의 굴절과 명암」, 『성호학보』21, 성호학회, 2019, 103-121쪽.

- ① 柳子山[柳徠]이 『魯論』·『中庸』·『大學』 세 책을 부쳐주면서 보낸 시에 차운하다.

故舊께서 궁색한 우리 아이 풍요롭게 하였으니      故人解使窮兒富  
보내주신 한 상자 서적 만가지 은혜를 베푼 것이네      一笈書來萬惠垂<sup>100)</sup>

- ② 언젠가 선생께서 나의 [柳慶種] 거처로 오셔서 書架 위의 책을 보시고는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늘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대 집안의 책을 버려두고 가기는 어렵겠네’라고 하셨다.<sup>101)</sup>

- ③ 『高麗全史』도 우리 집의 책을 몇 년 동안 빌려 보셨는데, 한 마을의 김아무개가 빌려보기를 청했다. 이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니 선생께서, ‘그대가 보는 것이라면 마땅히 돌려줘야 하겠지만, 다른 이에게 빌려주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집에 두어서 오랫동안 열람[看閱]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라고 했다.<sup>102)</sup>

권상일과 유래의 관계는 『청대일기』에서 한 장면만 포착된다. 역시 용건은 책이었다.

1720년 9월 8일. 편지로 柳子山[柳徠]의 안부를 묻고, 빌린 『朱子語類』를 보냈다.<sup>103)</sup>

비록 단회적이지만 권상일이 청문당의 서책을 차람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유래는 1711년 진사를 거쳐 1727년 문과 및 문과 증시에도 합격한 수재였지만 1728년 무신란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권상일과의 교유가 지속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李漢訥은 李晬光의 현손이자 경상감사와 형조판서 등을 지낸 李玄錫의 조카였으며, 17세기 남인사회에서 정치·문학 그리고 서화로 명성이

100) 李漢, 『星湖全集』 卷1, <次柳子山寄贈魯論及庸學三書韻 三首>.

101) 유경중 지음, 윤재환 옮김, 『국역성호선생언행록』, 성호박물관, 2019, 147쪽.

102) 유경중 지음, 윤재환 옮김, 『국역성호선생언행록』, 성호박물관, 2019, 159쪽.

103) 權相一, 『淸臺日記』, <1720年 9月 8日>.



높았던 李沃[상주로 낙향한 李萬敷 부친]·尹斗緒[尹善道 증손]는 그의 고모부였다.

정통 관료이면서도 성리학 등 학문에 조예가 있어 李玄逸과도 경세 및 학문을 토론하는 관계를 유지했고, 『明史綱目』, 『易義窺斑』 등의 저술을 남겼다. 『명사강목』은 1694년 청풍부사 때 지은 것으로<sup>104)</sup> 이익으로부터 ‘義例’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평을 들은 바도 있다.<sup>105)</sup>

권상일이 관심을 보인 저술도 『명사강목』이었는데, 그 소장자가 곧 이한눌이었다. 이한눌은 서울에서 성장하였으나 중년에 상주 백화산으로 이거함으로써 권상일과 상견의 기회가 잦았고, 아들 李正胄를 권상일의 혼서로 들일만큼 情好가 돈독했다.<sup>106)</sup>

1751년 8월 25일. 오후에 참봉 이한눌이 찾아왔기에 붙잡아 재웠다. ... 들으니 이현석의 『游齋集』 및 『明史綱目』 31권이 이한눌의 집에 있어서 빌려줄 것이라 한다.<sup>107)</sup>

따라서 『청대일기』에는 이한눌과의 ‘相見·書問·同遊’ 기사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이들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저술의 대여 관련 언급이다. 물론 권상일이 이를 차람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고, 차람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논평 또는 비평의 글은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유념할 것은 근기권 학인들의 저술에 대한 권상일의 특별한 관심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맹휴의 ‘遺疏’, 홍중인의 『鵝洲雜錄』과 『四七辨證』, 권득기의 『晚悔集』, 권시의 『炭翁集』과 마찬가지로 『유재집』 및 『명사강목』의 차람 욕구 또한 근기학인에 대한 지식문화적 관심도의

104) 李玄錫, 『游齋集』 卷10, <寒碧錄> ‘序’ “甲戌冬 公爲撰修明史綱目 力辭京職 出宰淸風”

105) 李瀾, 『星湖全集』 卷25, <答安百順問目> “李判書明史綱目 義例不明 便一類聚書似是未及校正 遽然刊行 致有此失也 以其大者言之則靖難之舉 只云燕王舉兵 然則褒貶安在”

106) 權相一, 『淸臺集』 卷10, <祭華陰翁李漢訥文>(1756) “生長漢陽 只欲遜藏 不嫌流泊 爰占鄉居 白華之北 … 晚托婚媾 情好益篤 往來便數 札翰連續”

107) 權相一, 『淸臺日記』, <1751年 8月 25日>.

반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근기권 인사 가운데 권상일이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은 전술한 한광도와 조숙이었다. 그는 趙綱의 현손이자 趙九琬의 손자였다. 유명현이 조구완의 사위였으므로 조숙과 앞에서 언급한 柳徠는 내외종간이었다. 허목·윤선도·홍우원과 함께 ‘南人4先生’으로 일컬어진 조경은 문장·행의로써 명성이 높았고, ‘穌齋先生文集叙’, ‘愚伏神道碑銘’, ‘沙西神道碑銘’, ‘題急難圖後’ 등 盧守愼·鄭經世·全湜·李鼎·李堧 등 상주 인물과 관련된 중요문자도 다수 찬술한 바 있다.

권상일은 傳聞 정보를 통해 조숙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1746년 윤3월 25일. 들으니 龍洲[趙綱]의 현손 조숙이 나이 스물인데, 됃됨이와 도량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누대에 걸쳐 사환을 지속한 집안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서 이른 나이에 이름을 드러냈으니, 매우 기쁘다.<sup>108)</sup>

일종의 안도감과 기대감이 섞인 평설에는 ‘남인사회’ 전반을 염려하는 존장의식같은 것이 묻어난다. 조숙은 동년 윤3월 2일에 치러진 정시문과에서 을과 1인, 즉 총 9명 가운데 2위로 합격했고, 권상일의 호평 속에는 이 사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1751년 11월 8일에는 조숙의 종제 趙窓이 상주로 찾아와 아버지 趙守道の 편지를 전했고,<sup>109)</sup> 1752년 6월 24일에는 성현 찰방에서 주서로 임명된 조숙이 상주를 지나면서 문안 편지를 보내는 등 양측의 교류도 크게 진전되었다.

이런 관계는 권상일 및 상주의 유림사회에 얘기치 못한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17세기 초반 상주사림을 영도하며 道南書院의 초대 원장을 지낸 趙靖의 6세손 趙錫愚가 조숙의 추천으로 주서 천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108) 權相一, 『淸臺日記』, <1746年 閏3月 25日>.

109) 權相一, 『淸臺日記』, <1751年 11月 8日>.

1755년 11월 8일. 정자 趙錫愚가 實注書 추천에 들었는데, 수찬 조숙이 추천하였다고 한다.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은 인물됨과 문장이 이 직임을 맡기에 충분하다.<sup>110)</sup>

기쁨을 토로하는 권상일의 표현 속에서 포착되는 정서는 ‘영남’과 ‘경남’의 원활한 연대를 지켜보는 만족감이고, 그 바탕에서는 자신도 거기에 일조했다고 하는 自負意識이 작동하고 있었다.

남현로는 소북계로 활동했던 남환의 현손이다. 남환은 1657년 9월 10일 서울 貞洞 소재 裴尙一의 집에서 소북계를 결성할 때 참여한 인물이다. 이 가게 또한 효종~숙종대를 거치면서 남인화 되었고, 남현로 또한 이익과 사제에 준하는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남현로는 1751년 이맹휴가 사망하자 여러 차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아래는 그 정성에 대한 이익의 謝意가 잘 드러나 있다.

南樸晦[南顯老]는 화락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이어 편지를 보내 죽은 이를 애도하고 산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면서 살갑게 보살펴 주니 골육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sup>111)</sup>

남현로와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1747년 12월 경이었다. 당시 권상일은 서울에서 사환에 종사하고 있었다. 황운대는 상경 때 남현로의 집에 유숙할만큼 친교가 깊었는데, 권상일과의 첫 대면 때도 황운대가 동석했다.

1747년 12월 4일. 남양에 사는 黃得甫[黃運大]가 보러 와서 ‘모래 樸晦[南顯老]와 함께 길을 나설 예정인데, 오늘 밤에 이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치회가 저물녘에 와서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삼경에야 잠 자리에 들었다.<sup>112)</sup>

110) 權相一, 『淸臺日記』, <1755年 1月 17日>.

111) 李瀾, 『星湖全集』 卷12, <答鄭汝逸壬申>.

112)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12月 4日>.

이후에도 남현로가 1748년 1월과 1749년 6월에 권상일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청대일기』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용건은 알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대집』에 남현로에게 보낸 두 통의 답서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담론의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답서는 1748년 8월에 온 서간에 대해 답한 것이다. 남현로는 ‘위학의 태도와 방향’을 물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권상일은 ‘공부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는 것인 바, 마음만 확고하다면 병을 조섭하거나 일을 처리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길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부에 마음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가운데 ‘規模廣大’와 ‘心思寬閒’을 정문의 일침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sup>113)</sup> 나아가 권상일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부담 또한 전에 비해 줄어든만큼 선현의 글을 沈潛玩味하여 心得의 경지를 기약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sup>114)</sup> 권상일은 답서의 말미에서 ‘이맹휴의 병환’, ‘황운대의 가난’에 대한 우려도 빠트리지 않고 있다.<sup>115)</sup> 이는 적어도 남현로·황운대·이맹휴와의 관계에서 권상일은 ‘友’의 범주를 넘어 ‘師’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두 번째 서간은 치병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답변이다. 남현로가 앓았던 고질[本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권상일은 心力을 過用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한가롭고 담담하고 유쾌하게 지낼 것’을 권유한다.<sup>116)</sup> 권상일도 밝히고 있듯이 이 말은 1556년 이황이 南彦經에게 내린 치병과 치심의 요결이었다.<sup>117)</sup> 권상일이 굳이 ‘이황과 남언경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남언경과

113) 權相一, 『淸臺集』 卷9, <答南樸晦顯老(戊辰)>(1748) “爲學工夫 無時不在 無處不有 隨時隨處 而提挈照關 心無不在 則調病應事 至於道路行役 皆合着工夫 切望勿忘了 更以規模廣大 心思寬閒兩語 爲頂門針 如何”

114) 權相一, 『淸臺集』 卷9, <答南樸晦顯老(戊辰)>(1748) “卽今甘旨之憂 似不如曩時 隨閒隙看讀古人書 沉潛玩味 心有所得爲期 亦如何”

115) 權相一, 『淸臺集』 卷9, <答南樸晦顯老(戊辰)>(1748) “醇叟病重之報 丁君遭艱 俱可驚心 得甫安過於險歲云 可幸”

116) 權相一, 『淸臺集』 卷9, <答南樸晦> “本疾往復 似是過用心力所致 幸須虛閒恬愉 如退翁與南時甫書中語也”

117) 李滉, 『退溪集』 卷14, <答南時甫彦經(丙辰)>(1556) “大抵公前日爲學 窮理太涉於

남현로가 동종이라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짐작되는데,<sup>118)</sup> 그 이면에는 이항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언경과 남현로를 동일시하는 ‘師弟’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권상일과 정항령의 관계가 포착되는 것은 1746년이다. 당시 권상일은 서울에서 사환 중이었고, 정항령이 翰林召試에 합격한 사실을 동년 <11월 20일> 일기에 간략하게 적었다. 두 사람의 상견 및 대화 장면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747년 12월에 가서야 나타난다.

1747년 12월 15일. 桃渚洞에 사는 한림 鄭恒齡이 보러와서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저물녘에야 돌아갔다. 정군이 ‘주상계서는 십분 근심하고 힘쓰시는데, 신하들 중에는 6~7분 정도 힘쓰는 자도 있고, 2~3분 정도 힘쓰는 자도 있으며, 원래부터 힘쓰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는 실정에 맞는 말이다.<sup>119)</sup>

신료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지점에서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항령과의 관계에서 권상일의 要務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지도에 대한 관심 및 열람이었다. 주지하다시피 鄭恒齡家の 가학의 요체는 ‘地圖學’이었다. 鄭尙驥의 『東國地圖』에서 배태된 지도학의 전문성은 아들 정항령이 『東國大地圖』를 편찬하는 단계에서 가학으로 확립되었다.<sup>120)</sup> 특히 百里尺을 활용한 『동국대지도』는 정약용이 『大東水經』을 저술할 때 핵심적인 전거로 활용했을만큼<sup>121)</sup> 권위를 인정받은 역작이었다.

권상일은 이들 부자가 편찬·제작한 지도에 관심이 많았고, 정항령과의

幽深玄妙 力行未免於矜持緊急 強探助長 病根已成 適復加之以禍患 馴致深重 豈不可慮哉 其治藥之方 公所自曉 第一須先將 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臺 既辦得此心 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 如是而凡日用之間 少酬酢 節嗜慾 虛閒 恬愉以消遣 至如圖書花草之玩 溪山魚鳥之樂 苟可以娛意適情者 不厭其常接 使心氣常在順境中 無拂亂以生嘖患 是爲要法”

118) 南彦經 대에 기준할 때 남현로의 8대조 南應雲과 남언경은 8촌형제 사이였다.

119) 權相一, 『淸臺日記』, <1747년 12월 15일>.

120) 이우형·오상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의 지도사적 의의」, 『문화역사지리』1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166-169쪽.

121) 양보경, 『大東水經』 해제.

친숙함이 무르익기가 무섭게 차람 요청을 하기에 이른다. 정항령의 응대에도 전혀 까다로움을 발견할 수 없다. 자신이 성호 문인이고,<sup>122)</sup> 권상일과 성호문파와의 지식문화적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手本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1747년 12월 24일. 도저동 한림 정항령이 보낸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곧바로 편지를 써서 지도를 빌려 달라고 청했다. 답장이 왔고, 또한 종을 통해 지도를 보내 왔다.<sup>123)</sup>

권상일이 지도 차람을 서둘렀던 것은 지적 호기심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와도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울산 읍지인 『鶴城誌』 편찬이었다. 권상일은 울산부사에 부임한 1735년 고을의 문헌 정비 차원에서 『학성지』 편찬을 추진한 바 있다.<sup>124)</sup> 고을의 선비 朴望久[朴敏孝]와 李元聘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초안이 이루어졌으나 1738년 해임될 때까지 완료하지는 못했다. 이에 그는 그 수정을 위해 원고를 들고 귀향했고, 약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정항령과 교유하던 1747년은 이원담 등이 『학성지』의 마무리를 재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읍지 편찬의 주요 부분인 지도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차람을 서둘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교롭게도 권상일은 정항령에게서 지도를 차람한지 1년 남짓 지난 1749년 『학성지』 수정을 마친 뒤 서문까지 붙여 회송함으로써<sup>125)</sup> 15년에 걸친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sup>126)</sup>

122) 黃在英, 『大溪遺稿』 卷7, <亡友鄭文五行錄> “生諱 恒齡官司諫號謙齋 出入李星湖門下 英宗朝承命撰常訓輯篇”

123)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12月 24日>.

124) 『鶴城誌』의 편찬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는 우인수, 「1749년(영조 25) 蔚山邑誌 《鶴城誌》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117, 한국사연구회, 2002, 127-132쪽.

125) 權相一, 『淸臺集』 卷11, <鶴城誌序>.

126) 권상일은 『학성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상주읍지인 李堉의 『商山誌』를 수정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權相一, 『淸臺日記』, <1749年 5月 8日>, <1749年 5月 19日>, <1749年 6月 4日>, <1749年 8月 1日>, <1749年

정운희는 입직 때도 주역을 읽는 호학인으로 기억했고, 이광국은 이익과 왕래한 편지의 주요 전달자로서 권상일에게는 더없이 요긴한 인물이었다.

1747년 3월 29일, 본부의 입직 도사 鄭運熙가 자주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람은 승지를 지낸 鄭必寧[鄭志寧의 오기]의 셋째 아들인데, 학문에 뜻을 두어서 입직할 때도 항상 『주역』을 읽었다<sup>127)</sup>

이덕형의 5세손인 이광국은 서울 도저동에 주거를 둔 전형적인 근기남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山水癖이 있어 경향을 자주 왕래하였던 바,<sup>128)</sup> 이익과 권상일이 주고받은 서간의 전달자로서는 최적임이었던 것이다.

① 1757년 6월 14일, 서울에 사는 李光國이 지나다 들렀다. 성호의 편지를 가져와 전했다. 이 사람은 漢陰[李德馨]의 후손으로 남대문 안 桃渚洞에 살고 있다.<sup>129)</sup>

② 1757년 11월 22일 이광국이 지나다 들렀다. … 성호에게 답장을 써서 부쳤다.<sup>130)</sup>

③ 1758년 4월 11일, 이광국이 하도에서 왔다. 또 성호의 1일 편지를 전해주었다.<sup>131)</sup>

---

8月 2日>, <1754年 6月 20日>). 『鶴城誌』의 실질적인 편찬 업무를 맡은 朴敏孝는 여헌문인 朴尙彬의 손자이고, 권상일 또한 고조 權益隣이 여헌문인이다. 읍지 편찬은 寒旅學風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바, 박민효·권상일이 여헌학맥에 속한다는 점은 『鶴城誌』의 편찬을 한려학의 계승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려학인의 읍지 편찬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旅軒學派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34-41쪽.

127)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3月 29日>.

128) 『淸臺日記』에 따르면, 그가 유람한 곳은 金剛山·妙香山·九月山을 비롯하여 안동의 河回[류성룡]·溪上[이황]·西谷[권벌] 및 영남우도의 제 경승지 등 매우 광범위했다(權相一, 『淸臺日記』, <1757年 6月 14日>, <1757年 11月 22日>).

129) 權相一, 『淸臺日記』, <1757年 6月 14日>.

130) 權相一, 『淸臺日記』, <1757年 11月 22日>.

- ④ 1758년 11월 4일. 서울에서 이광국이 보러 왔다. 성호의 편지를 전해주었다.<sup>132)</sup>

정운희와 이광국과의 관계는 단회적이거나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권상일의 근기권 교유의 스펙트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6. 姜楷·姜必愼 : 영남에서 발화한 근기권 학인과의 교제

근기 또는 호서 출신으로서 영남으로 이거했거나 寓居 기반을 두고 권상일과 긴밀한 교유관계를 형성했던 경우로는 진주강씨 일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강사안·사의·사상·사필의 후손들로 권상일의 주된 교유 대상은 강석필을 비롯하여 강박·강해, 강필응·필득·필신 등이었다. 강석필은 선대에 이미 상주 중모로 이거함으로써 권상일에게는 동향의 벗으로 받아들여졌고,<sup>133)</sup> 강박은 환우이자 정치적 동지의 관계를 유지했다.<sup>134)</sup> 강인의 후손으로 호서의 서천 일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강필응·필득 형제 또한 작은 왕래와 書問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sup>135)</sup>

131) 權相一, 『淸臺日記』, <1758년 4월 1日>.

132) 權相一, 『淸臺日記』, <1758년 1월 4日>.

133) 권상일은 姜碩弼의 묘갈명에서 ‘商鄉高隱 昭代逸民’, 제문에서 ‘並枕聯床 論今討古’라 표현하는 등 자신과의 친분 및 18세기 상주의 사람사회에서 접했던 강석필의 위상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했다(權相一, 『淸臺集』 卷12, <松隱姜公墓碣銘>; 卷10, <祭松窩姜公望文>).

134) 권상일은 강박에게 공무의 여가에 학문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홍문록[瀛錄] 입록을 축하하는 등 깊은 관심을 피력한 바 있다(權相一, 『淸臺集』 卷7 <與姜子淳樸> “春間 邂逅聯枕 幸遂平生之願 別後戀嚮 結在心曲 … 伏惟撫字有相 政履珍衛 峽裏殘呂 簿牒稀少 三冬長夜 想不虛過 朱夫子所謂讀書優游 此今日仕宦之最佳處 正高明事 而地遠無由往叩近來所得 良可恨鬱 但既選瀛錄 早晚當還朝 似不得久有此吏隱之樂也”).

135) 權相一, 『淸臺集』 卷3, <姜友兄弟 必應必得 寓居舒川鄉庄 已經數十年 新結小軒 爲



이 중에서도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姜楷(1680-1750)와 그 조카인 姜必愼(1687-1756)이다. 감사를 지낸 강홍중의 증손인 강해는 李聘命의 사위가 되어 처향인 칠곡 석전에서 우거하는 과정에서<sup>136)</sup> 권상일 등 영남학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조카인 강필신은 48세 때인 1734년 숙부를 따라 석전으로 이거했고, 1748년 상주 少陵里[開元]으로 다시 이거함으로써 권상일과 공간적 근접성이 더욱 높아졌다.

권상일과 강해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1710년 6월 11일이었다. 당시 권상일은 과거를 위해 상경하여 6월 8일 시험을 치르고 15일에 있을 창방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1710년 6월 11일, 발길을 돌려 상사 李世瑗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의 아우 世瑄 및 李基命과 상사 姜楷 등을 서로 만나 보았다.<sup>137)</sup>

#### 진주강씨 가계도

詞	⇨永叔	⇨諱	⇨士安	⇨紳	: 姜樸 系統
			⇨士翼	⇨纘	: 姜碩弼 系統
	⇨溫	⇨士尙	⇨緒		
			⇨紳[出]		
			⇨綰	: 姜必應/必得 系統	
			⇨統		
			⇨士安[出]		
		⇨士弼	⇨綬	: 姜楷/必愼 系統	

李世瑗[李聘命 조카]을 만나러 갔다가 姜楷와의 교제도 맺어졌고,<sup>138)</sup>

朝暮湛樂之所 昨冬寄書來 請題咏 略以絕句三疊塞求>.

136) 姜必愼, 『慕軒集』 卷5, <題寄軒先生贅土記後> “寄軒先生既定宅於石田之隙地 則名其地曰贅土 蓋用土俗方言也” ; 卷5, <寄軒小池記>.

137) 權相一, 『淸臺日記』, <1710年 6月 11日>.

1712년 10월에는 강해가 권상일의 친상에 몸소 조문하는<sup>139)</sup> 등 관계가 더욱 두터워졌다. 아래는 『청대일기』에 수록된 강해의 줄기인데, 권상일이 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1750년 5월 21일. 들으니 참봉 姜季範[姜楷]이 세상을 버렸다고 한다. 애통하기 그지없다. 한양에서 칠곡 石田으로 와 임시로 산 지가 벌써 여러 해이다. 강계법은 깨끗한 지조와 단아한 인망으로 선비와 벗에게 추종을 받았다. 그리고 멀지 않아 思敬[姜必愼]의 새 별장으로 옮겨서 살려고 하였는데, 미처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더욱 참담하다.<sup>140)</sup>

즉, 권상일은 그를 ‘깨끗한 지조에 단아한 인망’을 갖춘 벗으로 기억했는데, 실제 그는 호학의 선비이기도 했다. 그의 학자적 역할 가운데 주목할 것은 『海東自警編』의 편찬이었다. 이 책은 송나라 학자 趙善瑤가宋代 명현들의 언행을 여덟 유형으로 분류하여 엮은 『자경편』의 체례를 따른 것이지만 조선 명현들의 언행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권상일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호평하는 가운데 차람을 요청했을만큼 큰 관심을 보였다.<sup>141)</sup> 그러나 강해 당대에는 차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안건은 조카 강필신과의 관계로 넘겨지게 된다.

강필신은 권상일보다 8세 연하였지만 두 사람은 知己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다. 1739년 3월 강필신의 방문 기별에 기쁨

138) 李世瑗의 증손이 영조~순조조 영남의 대표적 학자였던 李萬運이다. 이만운은 ‘寄軒姜先生遺事’에서 유년기에 강해에게 배운 사실을 언급하고 스스로를 ‘門下小子’라 칭했다. 강해의 석전 齋가 이만운의 학자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할 수 있는 대목이다(李萬運, 『默軒集』 卷12, <寄軒姜先生遺事>). 강해가 처부 李聘命의 행장을 찬술한 것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李聘命, 『靜齋集』 卷8, 부록, <行狀>(姜楷撰)).

139) 權相一, 『淸臺日記』, <1712年 10月 5日>.

140) 權相一, 『淸臺日記』, <1750年 5月 21日>.

141) 權相一, 『淸臺集』 卷7, <與姜季範楷> “曾聞海東自警編 留意輯成 未知已卒業否 如論禮論學諸書 自宋迄今 有無數說 外此而別有著述 則是求異求多 而反害於道 惟此編似不可無 蓋國朝名賢碩輔 嘉言善行之可師可法者 無遜 於宋朝也 相距稍左 無由一覽 恐爲千載之恨爾”

을 감추지 못했고, 강필신 또한 石田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는 등 양자 사이에는 隱諱의 여지가 적어 보였다.

1739년 3월 3일. 오후에 장령 강사경[姜必愼]의 짧은 편지를 받아 보았다. 좌랑 姜而直[姜杭]과 오늘 느지막이 存道村에 온다고 하니 놀랍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곧바로 가 만나 보았다. … 저물녘에 사경과 함께 弄淸臺에 갔다. 太古巖의 생김새를 말하며 묘향산 檀君臺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 사경이 말하기를, 수년 전에 칠곡 石田에 정착하여 그의 삼촌 참봉공[姜楷]과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나, 다만 서울과 너무 멀어서 왕래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또 이 마을이 광주이씨의 세거지여서 가을이 되면 이주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아침저녁으로 서로 따르며 지낼 수 있을 것이니, 매우 다행이다.<sup>142)</sup>

여기서의 이거 계획은 상주 소릉리로의 이주를 말하는데, 권상일의 선부론 바람과는 달리 이것이 성사된 것은 이로부터 9년이 지난 1748년이었다.<sup>143)</sup>

이후 권상일은 강필신과 회합 또는 서신을 통해 교류를 지속했는데, 1745년 12월에는 성호문인 愼後聘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했고, 1747~48년 무렵에는 상주 이거가 임박했음을 체감하게 된다.

① 1745년 12월 29일. 신후담은 성호의 고제인데, 지난번에 들으니 강사경이 이번 여름 서울에 있을 때 하룻밤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또 저술을 좋아하여 평생 지은 문자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sup>144)</sup>

② 1747년 9월 6일. 관아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는 사경이 며칠 전에 城西[少

142) 權相一, 『淸臺日記』, <1739年 3月 3日>.

143) 『淸臺日記』에 따르면, 강필신이 상주 少陵里에 새 거처[城西 別莊, 開元 新居 등으로 지칭]를 마련한 것은 1748년 경으로 파악된다. 이런 사실은 鄭象晉[姜必愼 외증손, 姜世晉 외손]이 어머니 행록에서 칠곡[石田]에서 상주[少陵里]로 이거한 시기를 戊辰年으로 기술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鄭象晉, 『制菴集』 卷8, <先妣孺人晉山姜氏行錄> “英宗乙卯九月日 生於黍谷之石田寓舍 先是世居漢城 至甲寅王考掌令公 盡室南下 戊辰又徙尙州之少陵里”).

144) 權相一, 『淸臺日記』, <1745年 12月 29日>.

陵里] 새 별장에 와서 집을 수리하고 있어서이다.<sup>145)</sup>

- ③ 1748년 10월 1일. 汝容이 말하기를 서천군수 강필신은 지난번 開元[少陵里]에 있는 새집에 와서 며칠 머무르고 돌아갔다. … 개원에 있는 새 집은 20여 칸으로 지었으나 크고 작은 쇠못은 모두 본가의 돈으로 상주 읍내의 장인에게서 산 것이라고 한다.<sup>146)</sup>

강필신과의 교류에서 가장 요긴했던 관심사의 하나는 강해가 편찬한 『해동자경편』 원고의 차람이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상일은 강해에게 차람 의사를 내비쳤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강해가 사망했고, 그 원고를 강필신이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1751년 이후 강필신이 상주에 정착하자 권상일의 차람 욕구는 더욱 구체화 되었다.

『자경편』 속록은 일찍이 선숙부께서 생존해 계실 때 한번 차람하겠다는 뜻을 편지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선숙부께서 남긴 고적을 더욱 완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미 형과는 거처도 서로 멀지 않는 바, 조만간 빌려 올 수 있을 듯 합니다.<sup>147)</sup>

강필신이 『해동자경편』의 稿本을 관리한 것은 강해의 유명에 따른 것이었다. 강해는 강필신에게 ‘번다한 곳은 산절하고, 소략한 곳은 보충’하는 ‘刪繁增簡’의 권한을 주었고, 강필신은 홍중인과 상의하여 增刪 작업에 더해 책의 규모를 정하는 등 『해동자경편』의 정본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自警續篇』은 선생께서 만년에 극도로 공을 들인 것이다. 성조 300년 이래 이런 책은 있지 않았다. … 일찍이 서울에 있을 때 홍중인 영공과 상의하여 규모를 대

145) 權相一, 『淸臺日記』, <1747年 9月 6日>.

146) 權相一, 『淸臺日記』, <1748年 10月 1日>.

147) 權相一, 『淸臺集』 卷8, <答姜思卿> “自警編續錄 曾於大阮老兄在世時 一番借見之意 及於書中 卽今人事 不禁存亡之淚 而遺編古跡 尤欲奉玩 既近在於兄所 早晚可以借來也 中間會晤之約久矣 豈不欲一踐而畏蟄不能出門外一步 良可慨歎”

략 정했는데, 번다한 곳을 산절하고 소략한 곳을 보충할 때 조금이라도 적합하지 않게 해서 선생의 본의를 잃게 한 것이 있다면 나의 참람함이 크다.<sup>148)</sup>

한편 강필신은 권상일의 차람 요청에 이렇게 답한다.

선숙부께서 편집하신 『자경속편』 한 질이 있는데, 이는 불만한 서적입니다. 讎校가 대략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공에게 가지고 가서 聽裁할 생각이며, 아울러 발문까지도 청할 요량입니다.<sup>149)</sup>

한편 권상일의 『청대집』·『청대일기』 및 강필신의 『慕軒集』에서 『해동자경편』과 관련된 추가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강필신이 언급한 발문 또한 『청대집』에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권상일과 강해·강필신 숙질의 교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식문화적 같았었다. 양측의 관계를 단순한 社交를 넘어 지식문화의 유통이라는 문화사적 틀 속에서 조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IV. 맺음말

권상일과 근기권 학인과의 교류는 ‘정온과 이원익’, ‘하흥도와 허목’, ‘이현일과 정시한’, ‘배상유와 유형원’, ‘이만부와 이익’의 교류로 대변되는 ‘영남’과 ‘경남’의 학문적 소통과 연대의 계승 양상으로 포착이 되고, 그 배경으로서는 경향을 아울러던 권상일의 광폭적 교류망에 더해 상주

148) 姜必愼, 『慕軒集』 卷6, <重祭季父文> “自警續篇 先生晚年極工也 聖朝三百年來 未有此書 小子知此書必傳於後無疑 而第書纔屬稿 未及勘整 就其繁簡處 稍加增刪 然後方可謂成書 此則小子已聞命矣 尚在洛下時 與洪令亮卿商議 略定規模 而增刪之際 或有一累黍不中者 則有失先生本意 小子之僭大矣 然有勉弟在 可以參校 庶或無大悖也 凡此數事 皆先生家事 而後死之責 惟 小子當之 小子中夜流涕 思之不得 思之不得 輒復痛哭流涕”

149) 姜必愼, 『慕軒集』 卷5, <與權副學台仲 相一> “有先叔父所編輯自警續篇一帙 此爲可觀書籍 俟讎校略畢 謹當抱往聽裁 仍乞弁卷文字計耳”

권의 지역적 개방성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권상일이 교유했던 인사는 여주이씨[李尙毅家]·진주유씨[柳命天家]·청주한씨[韓浚謙家]·진양강씨[姜紱家]·전주이씨[李誠中家]·전주이씨[海原君家]·전주이씨[李睟光家]·전주이씨[李玄錫家]·전주이씨[李德馨家]·풍산홍씨[洪履祥家]·하동정씨[鄭尙驥家]·문화유씨[柳馨遠家]·한양조씨[趙綱家] 등 줄잡아 40家に 이르는 근기남인[京南] 명망가의 자제들이었다. 특히 李益熙·韓光道·李孟休·조숙 등은 李湊 또는 李瀾의 문인이었고, 그 외의 학인들 또한 이익과 지식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본고에서 권상일과 교유했던 근기권 인사들을 ‘星湖學人’으로 통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호학인과의 교유는 권상일이 32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했던 1710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주된 공간은 권상일의 본거인 상주와 사환기에 우거했던 서울이었다. 권상일은 학자인 동시에 관료라는 중층적 캐릭터를 갖고 있었지만 성호학인들과의 교유에서 時政 등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주제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대부분의 화제는 지식문화적 영역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남인학계에서 지니고 있었던 그의 학자적 역량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성호학인들은 권상일을 ‘퇴계학의 대변자’로 인식했던 것 같고, 그와의 知的 접촉을 영남학계와의 교유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어 보였다.

교유의 내용은 방문 및 서신 왕래를 통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교환, 학설에 대한 토론, 학문의 방향 및 출처에 대한 문답이 골자를 이루었다. 권상일은 柳徠를 통해 안산 淸聞堂 소장의 『朱子語類』를 차람하는 등 다양한 인물과 경로를 통해 근기남인계의 지적 축적을 차람 또는 열람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맹휴의 ‘遺疏’, 홍중인의 『鵝洲雜錄』, 이현석의 『游齋集』 및 『明史綱目』, 정항령의 『東國大地圖』, 강해의 『海東自警編』 등이 그 대표적 문헌들이다. 이런 문헌의 차람 또는 열람은 근기권 지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 권상일 자신의 지적 계발과 성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道南書院, 磻溪書堂, 淸臺 新居 등에 계관할 목적으로 尹德熙로부터 수증받은 10

개의 편액글씨 또한 양측의 문화 교류의 유의미한 장면으로 포착된다.

근기권 성호학인과의 교류에서 주목해야할 정서는 공감이었다. 공감의 요체는 퇴계학적 後學意識이었고, 그 주된 대상은 李滉와 李益熙였다. 정통 퇴계학인이었던 권상일의 학문적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理氣說에 있어 이익과의 의견 불일치였는데, 그런 고충을 해소함에 있어 지적 외원이 되어준 것이 이서와 이익회였던 것이다. 권상일이 이서를 通儒로 일컫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도 지적 공감에 따른 우호적 정서와 무관치 않았다.

성호학인과의 교류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장면은 근기권 청대문인의 존재인데, 한광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준겸의 6세손인 그는 12세 때인 1719년 명례방에서 청대문하에 입문한 이후 17336년 사망할 때까지 17년 종학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권상일은 서신 및 면대를 통해 ‘위기지학’에 힘쓸 것을 적극 권계하는 한편 성호문하 입문을 통해 학문의 외연 확대와 내적 심화를 권유하는 등 그를 학자의 길로 인도하는데 성력을 다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한광도를 성호문인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그는 권상일이 육성한 근기권 문인임이 밝혀졌고, 이는 권상일의 학자적 영향력이 상주 등 영남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원전

李萬敷, 『息山集』; 許傳, 『性齋集』; 權相一, 『淸臺日記』; 『청대일기』(일기국역총서14, 신상목역, 한국국학진흥원, 2015); 權相一, 『淸臺集』; 李秉休, 『貞山雜著』; 安鼎福, 『順菴集』; 『국역순암집』(한국고전번역원); 李瀾, 『星湖全集』; 『국역성호전집』(한국고전번역원); 洪履祥, 『慕堂集』; 朴世采, 『南溪集』; 趙德鄰, 『玉川集』; 李衡祥, 『瓶窩集』; 李健, 『葵窓遺稿』; 權尙夏, 『寒水齋集』; 李玄錫, 『游齋集』; 李孟休, 『蓮城東遊錄』; 姜必愼, 『慕軒集』; 李萬運, 『默軒集』; 李匡師, 『圓嶠集』

### 2. 저서

강세구, 『성호학통 연구』, 혜안, 1999.  
강세구, 『목재 이삼환과 호서지방 성호학통』, 혜안, 2016.  
허권수, 『남인과 서인의 학문적 대립』, 법인문화사, 1993.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 집문당, 1998.  
유경중 지음, 윤재환 옮김, 『국역성호선생언행록』, 성호박물관, 2019.

### 3. 논문

우인수, 「1749년(영조 25) 蔚山邑誌 《鶴城誌》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125-153쪽.  
이우형·오상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의 지도사적 의의」, 『문화역사지리』 1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165-181쪽.  
김학수, 「17세기 旅軒學派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3-52쪽.  
김학수, 「安鼎福과 嶺南學人의 교유-18세기 중후반 ‘京南’과 ‘嶺南’의 지식문화적 交感」,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2, 6-55쪽.  
김학수, 「진주유씨 청문당가(淸聞堂家)의 정치·사회·문화적 존재양상 : 조선 후기 근기남인가(近畿南人家)의 굴절과 명암」, 『성호학보』 21, 성호학회, 2019, 51-145쪽.



김학수, 「이원익(李元翼)의 학자,관료적 삶과 조선후기 남인학통(南人學統)에서의 위상」, 『퇴계학보』 133, 퇴계학연구원, 2013, 79~132쪽.

김학수, 「桐溪 鄭蘊의 학맥」, 『남명학보』 4, 남명학회, 2005, 144~152쪽.

안병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권상일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409~445쪽.

김학수, 「星湖 李瀼의 학문 연원」, 『성호학보』 1, 성호학회, 2005, 1~56쪽.

강세구, 「星湖門人錄 試案」, 『성호학보』 26, 성호학회, 2024, 597~629쪽.

Abstract

##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Exchange of Kwon Sang-il and the Scholars of Geun-gi Southerners: The Acceptance and Expansion of Gang-an hak in Sangju area in the 18th Century

Kim, Hak-su\*

This paper focuses on diagnosing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acceptance and expansion of Gang-an hak in Sangju area in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case of Kwon Sang-il, aiming to clarify its significance. Kwon Sang-il is chosen as the subject of analysis based on his scholarly and bureaucratic status within the Yeongnam School during the 18th century. Notably, his active exchange with scholars from Geun-gi Southerners serves as a crucial measure of the acceptance and expansion of Yeongnam scholarship.

One of the key concepts, acceptance, can be interpreted as the intellectual appetite of the scholars from Geun-gi Southerners, their interest in the intellectual assets they accumulated, and the manner of their "embracing" of the knowledge. Expansion, on the other hand,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diagnosing how Kwon Sang-il's scholarly role influenced the academic community of Geun-gi Southerner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learer representation of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olitical and academic affiliations and

---

\* Associate Professor, Korean History, Division of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soya@aks.ac.kr

communication between Yeongnam and Geun-gi, as exemplified by the relationships among figures such as Jeong On - Lee Won-ik, Ha Hong-do - Heo Mok, Bae Sang-yu - Yu Hyeong-won, and Lee Hyeon-il - Jeong Si-han.

**keywords :**

Gang-an hak, Sangju area, Kwon Sang-il, Yi Ik, Geun-gi  
Southerners, Seongho Scholars

